

농업·농촌경제동향

2000 가을

농업관측센터 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 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작성자: 전망팀(김경덕 / 채성훈)

연락처: 3299-4240 / 팩스: 965-4395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1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4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7
1. 세계농업과 농정	7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15
III. 국내경제 동향	27
1. 거시지표	27
2. 물 가	30
3. 소 비	35
4. 고 용	37
IV. 농촌경제 동향	39
1. 농촌물가	39
2. 농가교역조건	42
3. 농업인력	43
4. 농산물 수출입	43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49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49
2. 채소류	54
3. 과일류	64
4. 축 산	72

VI. 특별주제	81
○ 농가소득의 동향과 문제	83
○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91
부 록	99
○ 2000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101

<요 약>

I. 국제경제동향

- 세계경제는 3/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제 고유가, 동남아 환율불안, 유러화 폭락 등으로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국제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금년 4/4분기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율은 예상보다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4분기 실질성장이 5.4%에 이른 것으로 잠정 발표되었으며 무역수지는 1,776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독일은 2/4분기 3.25% 성장하였으며 프랑스는 0.7% 성장하였으나 유러지역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이 많아 36억유러 적자를 기록함. 러시아도 경제 모든 부문의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2001년 시행계획으로 있음.
- 중국은 강력한 민간수요, 수출신장에 힘입어 금년 7.5%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은 완만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경기부양을 계획하였으나 경기의 회복이 빨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4분기 1%성장하였으나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수준인 502조 엔에 달하고 있음. 10년에 걸친 장기불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낙관할 수준은 아님.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1년 6개월에 걸친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하고 8월부터 1일물 콜금리를 0%에서 0.25%로 상향 고시하였음.

- 세계교역은 지난 분기의 8.4%보다 높은 9.5% 증가할 것으로 수정 전망됨. 특히 각국의 자본재 및 소비재 수출입 증가로 공산품의 교역은 1.6% 상향조정된 9.9% 증가할 것으로 보임. 환율은 미-유럽간 성장을 및 이자율 격차에 따라 유러화가 폭락하여 2/4분기의 0.95달러수준에서 1유러당 0.84달러수준에 이르렀음.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0.25% 높였으나 유러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는 아님을 강조함. 엔/달러 환율은 3/4분기에도 105~6엔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였음.
- 국제유가는 한때 WTI기준 37달러 수준을 넘었으나 9월 11일 OPEC의 증산결정 및 9월 22일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 따라 현재 34달러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제 고유가의 배후에는 OPEC의 감산보다 세계적인 경기활성화에 따라 원유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를 고려한다면 OPEC가 추가증산에 나서더라도 유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현재 OPEC의 유전설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가동수준에 있어 추가증산의 여력이 크지 않음.

II.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농업구조조정』을 착수하고 있음. 동북부의 흑룡강성, 길림성에서는 옥수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두를 비롯하여, 도작, 축산, 원예작물 등 노동집약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의 800개 현, 9,000개 촌, 7만 명에 대한 농작물식부 의향조사에 의하면, 2000년 농작물 식부면적은 1.56억ha이며, 전년대비 40만ha 증가, 0.3%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 중에서 식량작물, 면화, 사탕은 감소하고, 유지작물, 麻類, 엽연초, 야채 등의 식부면적은 증가하였음.

- 미국 정부는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①직접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을 비롯하여, ②작물 보험 보조, ③마케팅론(Marketing Assistance Loan)이라는 국내지지 정책에 의한 농가의 소득유지나 가격지지를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작년 7월에 농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7월부터 EU의 의장국이 된 것을 계기로 농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최근 행해진 프랑스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WTO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음. 이 회의는 이미 지난 3월, 6월, 9월에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는 11월 16~17일에 제4차 회의를 남겨두고 있음.
- 개도국 그룹은 국내보조를 허용대상 하나로 통일하여 농업생산의 일정비율까지만 모든 국가에게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금지, 개도국은 「개도국 박스」(development box)를 설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 미국은 국내지지에 대해서 「블루박스」를 폐지하고, 「허용대상」과 「감축대상」 등 2분류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더욱이 「감축대상」정책에 대해서도 각국의 국내생산액의 일정비율까지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 2000/01년도 세계 주요국의 옥수수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맥은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들의 기상이 좋지 않아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므로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18억 6,234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2000/01년도 총공

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5,756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2억 1,99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18억 8,301만톤으로 전망됨. 국내 생산을 초과하는 소비부분에 충당될 곡물교역은 전년대비 0.1% 줄어든 2억 6,64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가 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2000/01년도 기말 재고량은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067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전년대비 5.8% 감소한 3억 3,689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17.9%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1999/00년도 재고율 18%보다 약 1.1% 포인트 낮은 수준임.

Ⅲ. 국내경제동향

-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9.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출하는 2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지속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자금경색 등으로 내수가 2/4분기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
- 공산품에 대한 내수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제조업가동률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4/4분기에는 재고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은 보리와 마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어업의 경우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출어회수가 감소하는 등 생산이 1.7% 감소하였음.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6.6%, 10.2% 성장하였음. 전반적으로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3/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력·수도·가스가 9.3% 상승하였고 광산품이 3% 상승하여 전년동기 대비 2.6%, 2/4분기 대비 0.8% 상승함으로써 그간의 지속적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음을 보여 줌. 가공단계별로는 원재료가 유가상승으로 인해 9월중 15.0%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중간재는 4.3% 상승하여 최종재가 생산되는 4/4분기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소비자 물가는 경기호전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와 석유류 제품의 가격상승 및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총지수가 3.2%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품은 4.3%, 공업제품은 2%, 서비스는 3.8% 상승하였음.
- 2/4분기 원자재의 수입물가는 국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12.8% 상승하였고 3/4분기에는 9.4% 상승하였음. 원화의 평가절상에 의한 수입물가 하락요인이 사라지고 수입물가의 오름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도소매판매는 자동차판매가 둔화되었으나 음식료품, 사무용기계 등의 판매 증가로 8.1% 신장되었으며, 7월에는 8.3% 증가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전월대비로 보면 4월이후 판매액 신장률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4/4분기에는 소비활동이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여름 휴가로 인해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데다 경제성장율이 하반기 이후 낮아지고 있어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로는 0.4% 증가하였음. 실업자는 818천명으로 1.7%가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1.2% 감소한 21,253천명임.

Ⅳ. 농촌경제동향

- 8월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미곡, 잡곡의 가격이 오른 반면 서류, 청과

물, 축산물의 가격이 내려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계광열, 보건의료, 영농광열비가 크게 오른 반면 주거비, 사료류의 가격이 내려 전월대비 1.3% 상승하였음.

- 8월의 농가교역조건은 공산품의 물가상승보다 농산물의 물가상승이 더디게 진행되어 전월대비 6.7% 악화되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12.1% 악화되었음.
- 4/4분기 이후 농가판매가격은 기상악화에 따라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 가격이 상당폭 상승할 전망이나 금년산 과일류와 미곡의 출하가 예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의보수가 인상과 유가상승에 따른 광열비 인상, 생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영농자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 결과 교역조건은 3/4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1997년말 이후 교역조건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이 도시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산물의 교역조건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1997년의 교역조건인 97~98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도시부문과 비교할 때 IMF 금융위기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임.
- 8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출은 구제역으로 돼지고기의 해외수출이 중단된 데다 홍콩시장의 홍삼부정유통 단속에 따라 961.9백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간 대비 1.9% 감소하였음.
- 8월까지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소득증가로 열대과일 및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5,613.1백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간 대비 17.5% 증가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3,320.5백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데 그쳤으

나 축산물 수입은 1,124.1백만달러로 47.5%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6%가 증가하여 1,692,169천달러에 그친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72.5%가 증가하여 1,270,815천달러에 달하였음.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침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산 농산물은 IMF 금융위기였던 19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다시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기존 교역대상국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어 국내 수입업자들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들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V.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3/4분기 농산물 가격은 오른 품목과 내린 품목의 수가 비슷하였음. 채소류는 대부분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중 양파는 단수가 지난해보다 10% 적었고 저장량도 적어 전년동기대비 15.1%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대파는 계속된 비와 태풍으로 전년동기대비 가격이 19.9% 상승하였음. 닭고기는 여름성수기 및 구제역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25.7% 상승하였음. 한편 계란은 그간의 계속된 가격하락에 따라 신규입식을 자제하여 전년동기대비 19% 가격이 상승하였고 2/4분기 대비로는 42.5% 가격이 상승하였음.
- 마늘가격은 중국산 냉동마늘 수입에 따른 무역마찰로 전년동기 대비 18.7% 하락하였으며 참외도 8월하순의 기상악화로 가격이 4.1% 하락하였음. 감자는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4천톤이상 증가한 관계로 10.3% 하락하였음.

- 배는 지난해의 가격이 평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결과 금년의 가격은 전년대비 67.4% 하락한 수준임. 축산물 중 한우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산지거래 가격이 일시 상승하여 300만원대를 넘었으나 현재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돼지의 경우는 사육두수 증가와 수출중단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 하락하였음.
- 4/4분기의 농산물 가격을 보면 과일류는 하락할 전망이나 채소류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사과는 4/4분기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작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배는 4/4분기 공급량이 작년보다 22%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포도는 4/4분기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아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떨어질 전망이며, 감귤은 해걸리 현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4/4분기 평균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 수박은 출하량은 증가하나 수요 감소와 배, 단감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평년이나 작년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며, 참외는 출하량 증가로 11월이후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채소류의 경우 주요 품목의 4/4분기 가격이 배추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가을배추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가격은 250만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임. 무는 9월에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4/4 분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추의 경우는 8월~9월까지 계속된 비로 작황이나빠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임. 오이는 9월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0월에는 작황이나빠 가격이 상승할 전망. 대파는 10월중순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10월하순 이후에는 출하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어서 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낮으나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됨.

품목	단위	1999(3/4)	2000(2/4)	2000(3/4)	증감율(%)		비고
		(A)	(B)	(C)	C/A	C/B	
일반미	천 원/80kg	165.3	162.7	168	1.6	3.3	호남미
보리	천 원/70kg	80.3	71	71.7	△10.7	1.0	쌀보리
콩	천 원/70kg	220	247	235.7	7.1	△4.6	백태
감자	천 원/20kg	9.7	15.3	8.7	△10.3	△43.1	수미
고구마	천 원/15kg	14	23.7	20.3	45.0	△14.3	
배추	천 원/5톤트럭	2,670.3	2,423.3	2,654.7	△0.6	9.5	
무	천 원/5톤트럭	2,442.3	2,574.3	2,497	2.2	△3.0	
마늘	원/kg	1,733	1,650.7	1,409.3	△18.7	△14.6	난지형
양파	원/kg	357.3	557.3	411.3	15.1	△26.2	
대파	원/kg	954.3	672.7	1,144	19.9	70.1	
건고추	원/600	4,126.3	4,500.7	4,366.3	5.8	△3.0	화건
오이	원/20kg	22,175	17,286	25,899	16.8	14.5	취청
감귤	원/15kg	56,072	37,970	56,190	0.2	48.0	
사과	원/15kg	25,916.3	19,422	19,301.3	△25.5	△1.0	
배	원/15kg	75,421.7	23,194	24,604.3	△67.4	6.1	신고
포도	원/10kg	27,484.3	60,321	24,752.7	△10.0	△59.0	
수박	원/6kg	3,585	5,082.7	4,003.7	11.7	△21.2	
참외	원/15kg	16,912.7	32,453.3	16,211	△4.1	△50.0	
한우	천 원/500kg	2,667.3	2,460.3	2,549	△4.4	3.6	큰수소
성돈	천 원/100kg	21.4	18.7	16.3	△23.8	△12.8	
돼지고기	백 원/kg	32.8	28.5	23.9	△27.1	△16.1	
닭고기	원/kg	1130	1,154.7	1,420.3	25.7	23.0	
계란	원/10개	665.7	558.3	795.7	19.7	42.5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세계경제는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제 고유가, 유러화 폭락, 세계 주가의 하락, 동남아 환율불안 등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국제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금년 4/4분기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0.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4분기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3%에 이른 것으로 잠정 발표되었음. 실업률은 4% 수준이며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5.7% 상승하였음. 무역수지는 1,77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1,160억달러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미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하던 반도체, 생명산업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10월 2일 Δ 2.83%)하였고 해당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었음. 이에 따라 연방준비위원회는 연방준비기금의 이자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2/4분기 독일의 경제성장은 3.25%로 발표되었으며 8월에는 3.1% 성장하였음. 프랑스는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7%임. 2/4분기 유러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9.2%로 1999년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낮아졌음. 178억유러에 이르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 적자에 따라 경상수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지는 39억유러 적자를 기록함.

- 중국은 강력한 민간수요, 수출신장에 힘입어 금년 7.5%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은 완만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경기부양을 계획하였으나 경기의 회복이 빨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4분기에 전기대비 1% 성장하였으며 이는 연율로 4.2%에 해당한다고 발표. 일본 재무성은 6월말 기준으로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채무잔고가 502조엔이라고 발표하여 국가채무가 1/4분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음.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수차에 걸친 경기부양정책을 펼친 때문임.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1년 6개월간의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하고 8월부터 1일물 콜금리를 0%에서 0.25%로 상향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 자본시장의 자본이동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일본경제의 회복징후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러시아는 상반기 중 1999년보다 7.5%의 실질성장을 달성하였음. 7월까지 산업생산은 10% 증가하였으며 고정설비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여 7월까지 17% 증가하였고 동기간 실질 가처분소득은 9%, 실질 평균임금은 23% 증가하였음. 국내 수요의 강세에 따라 소매부문 판매액은 약 8% 증가함. 한편 러시아 정부는 겨울철 난방수요에 대비하여 연료油(fuel oil)의 수출을 생산의 10%로 제한하였으며 디젤유에 대하여는 25%로 제한하고 매월 재조정하기로 하였음. 현 푸틴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7월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2001년 초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
- 동남아시아는 금융개혁 부진과 정치불안으로 외국인 자본이 재이탈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1997년과 같은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는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가상승에 따라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구심으로 회복이 지연되어 이자율이 높아지는 한편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3/4분기에 이어졌음.

- 중남미의 브라질은 1999년의 레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실질 GDP는 연간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GDP의 3.25%를 목표로 하고있는 공공부문의 재정흑자 또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 적자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계	3.6	3.5	2.1(2.6)	2.9(3.4)	4.1(4.7)	4.2(4.2)
선진국	3.1	3.2	2.4(2.4)	2.7(3.2)	3.7(4.2)	3.3(3.2)
미국	3.7	4.5	4.3	4.2	4.9	3.6
일본	5.2	1.4	△2.5	0.3	1.9	3.1
EU	1.9	2.8	2.8	2.1	3.3	3.1
개도국	6.0	5.2	1.3(3.5)	4.0(3.8)	5.9(5.6)	5.6(5.7)
태평양연안국 ^주	6.6	4.9	△5.0	5.9	6.7	5.7
한국	6.8	5.0	△6.7	10.7	8.2	6.0
중국	9.8	8.5	7.8	7.1	7.7	7.5
중남미	3.2	4.9	0.9	△0.7	3.6	4.3
동유럽	4.6	1.0	△0.9	2.6	5.9	4.4
구소련연방	△3.3	0.8	△3.2	2.9	4.7	3.8

주: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200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0.

됨. 멕시코는 국내 수요증가, 미국의 호황,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통화정책 또한 긴축정책을 쓰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1999년에 심각한 경기후퇴를 경험한 아르헨티나는 완만한 성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금년초 재정적자를 목표범위내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외국자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금년 GDP는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1. 교역량

- 세계교역 증가율은 아시아의 대미수출 증가와 북미 및 유럽의 경기활성화에 따라 지난 분기의 전망치(8.4%)보다 높은 9.5% 증가할 것으로 수정전망됨.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교 역 량	전 체	9.6	3.5(4.3)	5.5(5.1)	9.5(10.0)	7.2(7.8)
	원 자 재	6.2	0.9	1.7	8.1	6.1
	연료·에너지	4.1	0.4	4.9	8.2	5.6
	공 산 품	10.8	4.2	6.1	9.9	7.5
환 율	엔/달러	121.0	130.9	113.9	106.2	105.7
	마르크/달러	1.73	1.76	1.84	2.03	1.85
	유러	0.887	0.900	0.939	1.034	0.945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200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0.

- 원자재와 연료·에너지는 2/4분기의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나 공산품은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및 소비수요 확대에 따라 지난 분기보다 1.6% 상향조정된 9.9%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2. 환율

- 유럽은 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로 자본이 미국시장으로 유출되어 유러화가 1EURO당 0.84달러까지 폭락하였음. 자본유출과 경기활황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유럽중앙은행은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음. 금리인상에 앞서 미국, 일본, 유럽은 유러화의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단행한 바 있음.
- 엔/달러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1/4분기와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105~6엔 수준을 유지하였음.

2.3. 원유가격

- 9월 18일 국제 원유가격은 10월 인도물이 한때 37달러를 넘어서 각국으로하여금 스태그플레이션 유발을 우려하게 하였음.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대하여 다국적 정유사들이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과거와 달리 원유비축 물량을 줄였다는 설도 있으나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한 중동 산유국들의 유전설비가 거의 완전가동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세계적인 경제활황이 원유수요를 급증시켰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
- 미국 행정부는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비축油 방출을 지시하였으며 일본은 국내 비축물량의 대미수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이라크의 쿠웨이트 위협은 제2의 걸프전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사태가 중동의 정치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유가하락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됨.

- OPEC는 9월 11일 1일 증산규모 80만배럴에 합의하였으나 이미 40만 배럴이 초과생산되고 있음. 따라서 실제로는 40만배럴 증산에 불과하며 아시아의 원유수요 증가량 6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함.
-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국제유가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00.6	2000.7	2000.8	2000.9	20001)	20011)
WTI 유가	32.07	29.86	31.25	33.94	25.64	24.04
브렌트 유가	30.18	28.97	31.65	33.27	-	-
두바이 유가	27.35	26.20	27.07	30.03	-	-

주: 1) WTI는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2000.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 세계농업과 농정²⁾

1.1. 중국 WTO 가입대비, 농업구조조정 추진

-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농업구조조정』을 착수하고 있음. 동북부의 흑룡강성, 길림성에서는 옥수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두를 비롯하여, 도작, 축산, 원예작물 등 노동집약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길림성의 경지면적 가운데 옥수수가 7할을 차지함. WTO에 가입하면 해외에서 대량의 옥수수 수입을 예상, 작물전환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음. 성 인민정부는 현재 247만ha를 2015년에는 180만ha로 감소할 계획임. 줄인 면적(67만ha)은 대두와 도작 등으로 전환한다고 함.
- 전환작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유지작물인 대두임. 길림성 농업과학원은 대두의 유지성분이 21%대로 많은 품종『길림 35호』를 육성하여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음. F1 품종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음.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2~3년 이내에는 최저 2할 증수를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한다고 함.
-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중국 전체의 경지면적(1억 3,004만ha)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옥수수와 대두의 주산지로서 두 성의 생산량을 합치

2)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김태곤 부연구위원(taego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면, 옥수수가 2,700만톤으로 총 생산량의 37%를 차지함. 또 두 성의 쌀 생산량은 770만톤으로 중국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지만 중·단립종의 고급미 식부면적이 늘어나고 있음.

- 흑룡강성의 수도작은 역사가 짧음. 15년전에는 30만ha이었지만, 그 후 매년 7만ha정도 증가, 작년은 150만ha까지 늘어났음. 3강 평원의 풍부한 지하수가 밭에서 논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음.
- 증산한 쌀의 판매는 해외수출이나 국내이출로 대응하고 있음. 식미가 좋기 때문에 WTO 가입 후에도 쌀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2. 중국의 2000년 농작물식부 상황

- 중국의 800개 현, 9,000개 촌, 7만 명에 대한 농작물식부 의향조사에 의하면, 2000년 농작물 식부면적은 1.56억ha이며, 전년대비 40만ha 증가, 0.3%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 중에서 식량작물, 면화, 사탕은 감소하고, 유지작물, 麻類, 엽연초, 야채 등의 식부면적은 증가하였음.
- 금년, 중앙정부가 동북지역의 춘과 소맥과 남방지역의 품질이 좋지 않은 수도에 가격보호정책을 중지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식량작물 식부면적은 1.12억ha, 전년에 비해 1.2% 감소했음.
- 곡물의 식부면적은 2.5% 감소했음. 그 중에서 벼가 1.6% 감소, 소맥 2% 감소, 옥수수 5.4% 감소, 수수 12.3% 감소, 조 2.2% 증가, 서류 3.4% 증가, 두류 4.9% 증가하였음.
- 면화, 사탕류의 식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면화는 수익성이 악화하여 식부면적은 340만ha, 전년에 비해 10% 감소했음. 면화 생산량

이 10만톤을 넘는 8개의 주요 지구 가운데, 湖北省이 22.6% 감소, 江蘇省이 13.4% 감소, 河南省 12.1% 감소, 安徽省 10.1% 감소, 신장위글자지구 9.8% 감소, 河北省 1.8% 감소를 보였음.

- 유지종자의 식부면적은 1,486.6만ha이며, 6.8% 증가했음. 이것은 정부가 유지류 부정판매를 단속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상승, 유지종자의 경제성이 향상된 것에 기인함. 유지종자 가운데, 낙화생, 유채, 해바라기, 참깨, 마류의 식부면적은, 각각 7%, 7.3%, 6.1%, 7.1%, 3.7%증가했음.
- 엽채류와 근채류의 식부면적은 생활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7.6% 증가하고, 참외류의 재배면적은 11.3% 증가했음. 이 가운데 약재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어 금년도 재배면적은 10.8% 증가했다고 추측하고 있음.

1.3. 미국의 새로운 가격지지제도

- 미국 정부는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①직접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을 비롯하여, ②작물보험 보조, ③마케팅론(Marketing Assistance Loan)이라는 국내지지 정책에 의한 농가의 소득유지나 가격지지를 시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99년도 쌀농가의 총수입 25억 7,000만달러 가운데, 실제로 시장판매수입은 절반인 12억 8,000만달러이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지불 4억 6,600만달러(18%), 긴급직접지불 4억 6,500만달러(18%), 마케팅론 수입 3억 5,400만달러(14%)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은 주요작물 생산자에 대해 후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마케팅론제도의 경우 농가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3가지

가 있음.

- 첫째, 작물을 실제로 정부(CCC, 농업부 상품신용공사) 용자의 담보로 맡기고,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담보농산물을 CCC에 양도하는 방법(마케팅론).
 - 둘째 용자를 받지 않고 작물도 양도하지 않지만, 용자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액만을 수취하는 방법(Loan Deficiency Payment, 용자부족불).
 - 셋째 용자(현금) 대신에 증서를 받아서 용자부족불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수취하는 방법(증서제도).
- 첫째와 둘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셋째는 2000년도 「농업관련예산법」에 포함되어 금년 2월 농업부 장관이 도입을 결정한 새로운 가격지지제도임.
- 이 증서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부가 작물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고 증가 또는 재고 비용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마케팅론·용자부족불의 지불상한(농가 1호당 15만달러)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대규모 농가에게 무제한 지불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
- 현재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면화농가는 1,000에이커의 생산으로 마케팅론의 지불상한 15만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특히 대규모 경영이 많은 면화농가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실제 증서제도의 도입시에 면화단체가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고 함.

1.4. 프랑스 국민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이해

- 최근 행해진 프랑스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는 작년 7월에 농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7월부터 EU의 의장국이 된 것을 계기로 농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의 기능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95%가 고품질 농산품의 공급, 93%가 지역의 전통산품 생산유지, 90%가 환경보전, 85%가 지역사회 유지, 84%가 전원 환경의 유지·보전 등을 들고 있음.
- 한편, 농업이 가진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의 현재 평가는 꽤 다양함을 알 수 있음. 고품질 농산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63%가 굉장히 좋다, 22%가 꽤 좋으며, 나쁘다고 한 것은 12%이었다. 한편, 환경보전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하며, 63%가 좋다고 하는 등, 프랑스 국민의 약 3분의 1(33%)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전원환경의 유지·보전에 대해서는 70%가 좋다고 하고, 28%는 나쁘다고 대답했음. 나쁘다는 이유로는 44%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재원부족, 22%가 시간 또는 인적 자원 부족, 18%가 의식 결여, 14%가 이러한 활동보다도 생산을 우선할 것 등을 들고 있음.
- 농산물 생산이라는 종래부터 인식되고 있던 기본적인 농업의 기능 외의 새로운 농업기능에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수확량 감소를 각오하고라도 품질이 높은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89%, 환경 보전도 마찬가지로 89%, 전원환경 유지·보전에는 88%, 지역사회 유지에는 87%의 국민이 적절한 형태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새로운 농업의 기능은 작년 농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농업인과 행정당국이 체결한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CTE)의 내용이며, CTE는 국민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5. 호주 농업과 염해 확산

- 호주는 농업대국으로 소맥, 쌀, 쇠고기의 수출경쟁력은 세계 최고임. 그러나 만성적인 물 부족과 관개 확산에 의한 염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원래 호주는 염분 함유율이 높은 토지임. 산림을 벌채해서 농지로 만들고,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여 경작한 결과, 염해가 촉진되었음. 배수가 나쁜 토지에 관개를 한 결과 지하수위가 올라가는 한편 지표에 염분이 올라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가 됨. 이는 대륙에 서구인이 입식해서 약 200년, 관개농업이 시작된 지 100년정도만에 나타나는 문제임.
- 말란비지강 유역의 관개농업지대에서는 과거 50년동안 지하수위가 30미터나 상승하였고, 방치하면 앞으로 수십년에 농지의 20%에서 40%가 염해로 죽은 토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음.
- 호주에서는 채초방목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작물이 재배되는 경지면적은 약 2,000만ha임. 이 중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약 100만ha의 관개농지가 집중되어있음. 이러한 우량농업지대에서 약 30만ha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벼는 비교적 염분에 강한 작물이지만 주변 농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물을 대면 작물생산이 가능하다는 안이한 농지개발이 염해의 화근이 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일부 관개농업지대에서 1995년부터 농업용수의 취수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취수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취수기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며 용수 가격도 인상하고 있음. 쌀 농가에게

는 생산비의 1할에 해당함.

- 이미 피해가 표면화된 농지를 다시 살리는 것은 배수시설의 정비가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척박한 농지는 산림으로 환원하도록 권장하는 주정부도 있음.

1.6. WTO 농업협상과 주요논점

- WTO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음. 이 회의는 이미 지난 3월, 6월, 9월에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는 11월 16~17일에 제4차 회의를 남겨두고 있음.
- 농업협상의 기초자료인 각국의 제안서는 금년 12월이 제출 기한임. 미국은 이미 지난 6월의 제2차 회의에 관세의 대폭 감축을 포함한 각 분야에 관한 포괄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음. 우리나라, 일본, EU 등은 12월말까지는 제출할 것임. 협상은 2001년 3월이후가 되어야 본격화 될 것임.
- 각국의 제안서는 지난해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겠지만, 관세, 시장접근, 국내보조, 개도국배려 등이 포함될 것임. 각국 제안서는 국내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농업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한 것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활동에 따른 농산물 이외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임.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향후 무역협상을 자유화일변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개념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등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국제기관에서 검토에 근거하여 합의된 바가 없고, 또 주장하는 국가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임. 현재 OECD에서 다원적 기능의 개념정리가 행해지고 있음.
- 국내지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블루박스」를 폐지하고, 「허용대상」과 「감축대상」 등 2분류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더욱이 「감축대상」정책에 대해서도 각국의 국내생산액의 일정비율까지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개도국 그룹은 국내보조를 허용대상 하나로 통일하여 농업생산의 일정비율까지만 모든 국가에게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금지, 개도국은 「개도국 박스」(development box)를 설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 미국과 개도국 등의 주장은 농업총생산액에 차지하는 AMS의 비율을 각국 공통으로 상한을 설정,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수준까지 인하하자는 것이 골자임.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된 바 없지만, 대체로 미국은 자국의 수준까지 감소하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주요 국가의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AMS의 비율은 일본이 32%로 가장 높고, EU 23%, 한국 5%, 미국 3%, 캐나다 2%, 호주 0.4% 등의 순서임.
-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관세, 시장접근수준, 그리고 특별긴급관세제도 등이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음. 미국 등 수출국은 관세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한 자연조건의 차이와 지금까지의 경위가 고려되어야 하고, 또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대립하고 있음.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³⁾

2.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1.1. 전체 곡물

- 2000/01년도 세계 옥수수의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쌀과 소맥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18억 6,234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기말재고량 3억 5,756만톤과 생산량을 합쳐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2억 1,99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18억 8,301만톤으로 전망됨. 반면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년대비 0.1% 줄어든 2억 6,64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가 될 전망이다.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구분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29	1,865.89	1,868.90	1,862.34	△0.2	△0.4
공 급 량	2,213.67	2,233.48	2,226.32	2,219.90	△0.6	△0.3
소 비 량	1,864.09	1,875.92	1,882.56	1,883.01	0.4	0.0
교 역 량	257.22	266.86	265.71	266.46	△0.1	0.3
기말재고량	367.58	357.56	343.76	336.89	△5.8	△2.0
재고율(%)	19.7	19.1	18.3	17.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3) 이 자료는 농산업경제연구부 성명환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 mhsung@krei.re.kr로 연락바람.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067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5.8% 감소한 3억 3,689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17.9%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1999/00년도 재고율보다 약 1.2% 포인트 낮은 수준임.

2.1.2. 쌀

- 2000/01년도 쌀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550만톤 정도 줄어든 약 4억톤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604만톤, 중국도 1.8% 감소한 1억 3,65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2000/01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4% 늘어난 4억 124만톤으로 전년보다 145만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00/01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6.9% 늘어난 2,491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전망됨.

국제 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3.94	402.90	398.09	397.46	△1.4	△0.2
소 비 량	388.69	399.79	401.04	401.24	0.4	0.0
교 역 량	26.89	23.31	25.02	24.91	6.9	△0.4
기말재고량	60.03	63.13	60.60	59.35	△6.0	△2.1
재고율(%)	15.4	15.8	15.1	14.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 2000/01년도에는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0%가 줄어든 5,93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고율도 14.8% 수준으로 하락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2.1.3. 소 맥

- 세계 밀 생산량은 1999/00년 5억 8,593만톤에서 2000/01년에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5억 8,31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든 전망이기 때문임.
- 2000/01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1999/00년 5억 9,571만톤에서 0.2% 증가된 5억 9,667만톤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8/9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억 2,291만톤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00년 1억 2,872만톤으로 늘어났으나, 2000/01년에 다시 전년대비 1.0% 줄어든 1억 2,746만톤으로 될 전망이며,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1.9%가 될 전망이다.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8.56	585.93	581.30	583.15	△0.5	0.3
소 비 량	590.38	595.71	594.42	596.67	0.2	0.4
교 역 량	122.91	128.72	127.05	127.46	△1.0	0.3
기말재고량	136.90	127.11	113.33	113.60	△10.6	0.2
재고율(%)	23.2	21.3	19.1	19.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 1999/00년도 기말재고량은 1억 2,711만톤으로 추정되나, 2000/01년에는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로 전년대비 10.6% 감소한 1억 1,360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호주, 캐나다 등의 재고량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19%로 떨어질 전망이다.

2.1.4. 옥수수

- 2000/01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717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생산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임.
-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2000/01년의 소비량도 전년대비 1.1% 늘어난 6억 742만톤으로 전망됨. 그러나 옥수수의 교역량은 전년보다 1.6% 줄어든 7,896만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0%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옥수수 교역 비중이 약 70%를 차지할 전망이다.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5.51	605.33	612.97	607.17	0.3	△0.9
소 비 량	580.42	600.61	607.95	607.42	1.1	△0.1
교 역 량	75.51	80.27	78.22	78.96	△1.6	0.9
기말재고량	123.18	127.90	133.05	127.65	△0.2	△4.1
재고율(%)	21.2	21.3	21.9	21.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 2000/01년 옥수수 수급은 거의 균형을 이룰 것이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1억 2,765만톤으로 전망됨. 미국, 유럽, 아르헨티나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약간 내려간 21.0%가 될 전망이다.

2.1.5. 대 두

-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0/01년에 사상 최대인 1억 6,65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억 6,477만톤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180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 2000/01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4,534만톤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7.2%에 이를 전망이며, 전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60.0%, 브라질이 20.7%, 아르헨티나가 9.3%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0.0%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84	156.33	169.08	166.57	6.6	△1.5
소 비 량	159.52	160.39	164.71	164.77	2.7	0.0
교 역 량	38.63	46.47	45.61	45.34	△2.4	△0.6
기말재고량	27.15	23.41	28.02	25.29	8.0	△9.7
재고율(%)	17.0	14.6	17.0	15.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529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341만톤과 비교하여 188만톤 정도 늘어나 기말재고율도 15.3%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37.9%나 증가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기말재고율도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2.1. 개황

- 2000년 6월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짐.
- 대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9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됨. 그러나 소맥과 옥수수의 경우 전년수준보다 매우 수준에 있음.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8 평균	1999 평균	1999. 10	2000. 9	2000. 10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430.71	500.56	493.28	438.16	402.34	△19.6	△18.4	△8.2
쌀(장립종)	309.56	255.60	221.80	187.00	198.50	△22.3	△10.5	6.1
소 맥	119.90	122.06	126.63	105.60	107.66	△11.8	△15.0	2.0
옥수수	102.66	92.10	89.07	82.90	88.28	△4.1	△0.9	6.5
대 두	234.33	185.90	189.15	191.45	189.23	1.8	0.0	△1.2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2.2.2. 쌀

-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함. 이후 하락하여 2000년 10월 국제가격(10월 6일 기준)은 전년대비 19.6%, 전년동월대비 18.4%, 전월대비 8.2% 하락한 톤당 402.34달러 수준임. 6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짐.
-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10월(10월 6일 기준)에는 전월대비 6.1% 상승한 톤당 198.50 달러 수준임. 그러나 이는 전년보다 22.3%, 전년동월대비로는 10.5% 낮은 수준임.
- 현재 국제 쌀가격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2000/01년도 쌀 생산과 기말재고량이 감소,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2000/01년도 국제가격은 상승할 가능성 큼.

2.2.3. 소 맥

-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 153 달러로 하락하였음.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음.
-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10월(10월 6일

기준) 현재에는 107.60 달러로 전월보다 2% 상승함.

- 2000/01년의 국제가격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재고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약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1970년대 곡물 파동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 밀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전망이다.

2.2.4. 옥수수

-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음.
-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후 하락세가 반전되어 2000년 10월(10월 6일 기준) 현재 톤당 88.28달러로 상승함.
- 2000/01년 옥수수 생산은 증가하지만 기말재고량이 1999/00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어서 국제 밀 가격은 약상승할 전망이다.

2.2.5. 대 두

-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10월(10월 6일 기준) 현재에는 189.23 달러로 상승함. 그러나 이는 전월보다 1.2% 하락한 수준임.

- 2000/01년도 대두 생산량과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국제가격은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두의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제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실적치	1999/00 추정치	2000/01 전망치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74.65	484.02	485.63	484.60	0.1	△0.2
기초재고량	54.79	60.03	63.54	63.13	5.2	△0.6
생산량	393.94	402.90	398.09	397.46	△1.4	△0.2
중국	139.10	138.94	136.50	136.50	△1.8	0.0
인도네시아	32.10	32.10	32.10	32.10	0.0	0.0
태국	15.18	15.85	15.85	15.85	0.0	0.0
베트남	20.11	20.75	20.60	20.75	0.0	0.7
일본	8.15	8.35	8.00	8.00	△4.2	0.0
미국	5.80	6.45	6.25	6.04	△6.4	△3.4
수입량	25.92	21.09	24.00	24.01	13.8	0.0
인도네시아	3.90	2.00	3.00	3.00	50.0	0.0
일본	0.65	0.72	0.75	0.75	4.2	0.0
중국	0.17	0.20	0.25	0.25	25.0	0.0
이용량						
소비량	388.69	399.79	401.04	401.24	0.4	0.0
중국	136.00	137.00	136.75	136.75	△0.2	0.0
인도네시아	35.50	35.70	36.00	36.00	0.8	0.0
태국	8.90	9.00	9.10	9.10	1.1	0.0
베트남	15.61	17.39	16.64	16.79	△3.5	0.9
일본	9.10	9.45	9.10	9.10	△3.7	0.0
미국	3.63	3.82	3.76	3.87	1.3	2.9
수출량	26.89	23.31	25.02	24.91	6.9	△0.4
태국	6.68	5.80	6.60	6.60	13.8	0.0
베트남	4.56	3.40	4.00	4.00	17.6	0.0
미국	2.68	2.79	2.77	2.52	△9.7	△9.0
기말재고량	60.03	63.13	60.60	59.35	△6.0	△2.1
중국	27.29	26.43	23.63	23.23	△12.1	△1.7
인도네시아	4.03	2.43	1.53	1.53	△37.0	0.0
태국	0.65	1.70	1.65	1.85	8.8	12.1
일본	2.55	1.77	1.02	1.02	△42.4	0.0
미국	0.69	0.86	1.25	0.84	△2.3	△3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실적치	1999/00 추정치	2000/01 전망치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48.72	850.46	833.76	836.19	△1.7	0.3
기초재고량	138.73	136.90	126.45	127.11	△7.2	0.5
생산량	588.56	585.93	581.3	583.15	△0.5	0.3
중국	109.73	113.88	102.00	102.00	△10.4	0.0
미국	69.33	62.66	61.59	62.66	0.0	1.7
EU15	103.09	96.89	104.95	104.24	7.6	△0.7
호주	22.11	24.10	23.00	23.00	△4.6	0.0
캐나다	24.08	26.85	26.50	26.00	△3.2	△1.9
러시아	27.00	31.00	34.00	36.50	17.7	7.4
수입량	121.43	127.63	126.01	125.93	△1.3	△0.1
EU15	25.17	25.50	24.68	24.58	△3.6	△0.4
북아프리카	16.82	15.50	17.50	17.50	12.9	0.0
브라질	7.30	7.20	7.20	7.70	6.9	6.9
러시아	2.49	4.80	3.00	2.50	△47.9	△16.7
인도	1.99	1.70	0.05	0.05	△97.1	0.0
파키스탄	3.13	2.00	0.05	0.05	△97.5	0.0
이용량						
소비량	590.38	595.71	594.42	596.67	0.2	0.4
중국	115.57	117.00	114.00	114.00	△2.6	0.0
EU15	88.81	89.15	92.03	92.23	3.5	0.2
미국	37.69	35.47	34.05	34.05	△4.0	0.0
러시아	34.84	35.50	35.30	37.00	4.2	4.8
파키스탄	21.28	21.40	21.75	21.50	0.5	△1.1
수출량	122.91	128.72	127.05	127.46	△1.0	0.3
EU15	35.93	36.23	37.50	36.90	1.8	△1.6
미국	28.36	29.65	29.94	30.62	3.3	2.3
캐나다	14.71	19.20	19.50	18.50	△3.6	△5.1
기말재고량	136.90	127.11	113.33	113.6	△10.6	0.2
중국	27.90	25.25	16.28	15.75	△37.6	△3.3
EU15	18.02	15.03	15.13	14.73	△2.0	△2.6
미국	25.74	25.86	26.19	26.57	2.7	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실적치	1999/00 추정치	2000/01 전망치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9.15	805.24	817.31	812.37	0.9	△0.6
기초재고량	98.09	123.18	128.04	127.90	3.8	△0.1
생산량	605.51	605.33	612.97	607.17	0.3	△0.9
중국	132.95	128.08	115.00	115.00	△10.2	0.0
미국	247.88	239.72	263.39	263.22	9.8	△0.1
EU15	35.30	37.22	38.44	38.54	3.5	0.3
아르헨티나	13.50	16.00	16.50	16.50	3.1	0.0
멕시코	17.79	19.00	19.00	19.00	0.0	0.0
동남아시아	15.74	14.56	14.66	14.66	0.7	0.0
수입량	75.55	76.73	76.30	77.30	0.7	1.3
EU15	11.77	10.70	10.68	10.68	△0.2	0.0
일본	16.34	16.25	16.10	16.10	△0.9	0.0
한국	7.52	8.50	8.50	8.20	△3.5	△3.5
동남아시아	3.12	3.65	4.05	3.75	2.7	△7.4
멕시코	5.62	4.60	5.00	5.50	19.6	10.0
이용량						
소비량	580.42	600.61	607.95	607.42	1.1	△0.1
중국	114.30	116.95	120.00	120.00	2.6	0.0
미국	185.88	191.65	194.57	196.22	2.4	0.8
EU15	38.95	39.91	40.81	40.81	2.3	0.0
일본	16.44	16.35	16.15	16.15	△1.2	0.0
한국	7.62	8.25	8.50	8.50	3.0	0.0
동남아시아	17.85	18.38	18.95	18.65	1.5	△1.6
멕시코	23.04	23.10	23.60	24.10	4.3	2.1
수출량	75.51	80.27	78.22	78.96	△1.6	0.9
미국	50.31	48.90	53.98	55.25	13.0	2.4
아르헨티나	7.88	9.00	9.20	9.20	2.2	0.0
중국	3.34	9.00	4.00	4.00	△55.6	0.0
기말재고량	123.18	127.90	133.05	127.65	△0.2	△4.1
중국	51.55	53.83	44.98	44.98	△16.4	0.0
미국	45.39	44.94	60.68	56.94	26.7	△6.2
EU15	3.66	3.70	4.09	4.19	13.2	2.4
아르헨티나	0.71	0.91	1.01	1.01	11.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구 분	1998/99	1999/00	2000/01		변동률(%)	
			2000. 8	2000. 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25.30	230.27	238.35	235.41	2.2	△1.2
기초재고량	25.22	27.15	23.77	23.41	△13.8	△1.5
생산량	159.84	156.33	169.08	166.57	6.6	△1.5
중국	15.15	14.29	15.00	15.00	5.0	0.0
미국	74.60	71.93	81.34	78.91	9.7	△3.0
브라질	31.30	31.40	32.80	32.80	4.5	0.0
아르헨티나	20.00	20.70	21.50	21.50	3.9	0.0
수입량	40.24	46.79	45.50	45.43	△2.9	△0.2
EU15	16.77	16.79	16.44	16.44	△2.1	0.0
일본	4.81	4.80	4.70	4.70	△2.1	0.0
중국	3.85	9.00	7.25	7.25	△19.4	0.0
이용량						
소비량	159.52	160.39	164.71	164.77	2.7	0.0
중국	19.43	21.64	22.97	22.97	6.1	0.0
미국	48.74	47.62	48.94	49.05	3.0	0.2
EU15	17.77	17.27	16.95	16.94	△1.9	△0.1
브라질	23.20	23.30	23.80	23.80	2.1	0.0
아르헨티나	18.27	17.67	17.75	17.75	0.5	0.0
일본	4.98	4.96	4.96	4.96	0.0	0.0
수출량	38.63	46.47	45.61	45.34	△2.4	△0.6
미국	21.90	26.67	27.49	27.22	2.1	△1.0
브라질	8.90	10.20	9.40	9.40	△7.8	0.0
아르헨티나	3.23	5.10	4.20	4.20	△17.6	0.0
기말재고량	27.15	23.41	28.02	25.29	8.0	△9.7
미국	9.48	7.20	12.66	9.93	37.9	△21.6
브라질	6.30	4.90	5.00	5.00	2.0	0.0
아르헨티나	6.22	4.65	4.70	4.70	1.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66, Sep. 12, 2000.

Ⅲ. 국내경제 동향4)

1. 거시지표

-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9.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상반기로는 11.1% 성장하였음.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51.7% 증가하였고 상품수출은 23.7% 증가하였음.
- 출하는 2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가 2/4분기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수출상황에 따라 경기상황이 급변할 소지를 안고 있음.
- 내수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제조업가동률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금년 4/4분기에는 재고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산업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1999	2000				
	연간	1/4	2/4	5월	6월	7월
G D P	10.7	12.8	9.6	-	-	-
생 산	24.2	23.4	18.3	20.1	17.8	19.3
출 하	25.1	25.0	27.8	21.0	18.3	19.2
(수 출)	30.6	26.6	22.1	22.3	27.5	31.1
(내 수)	21.1	23.7	14.6	20.1	11.6	10.7
재 고	2.1	11.3	11.1	12.5	11.1	14.7
(전월비)	-	3.1	-0.6	0.5	△0.5	3.7
평균가동률	76.5	79.6	79.3	80.1	81.9	81.1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은 보리와 마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유가상승에 따라 생산이 1.7% 감소하였으며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6.6%, 10.2% 성장하였음. 전반적으로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연간	4/4	연간	1/4	2/4
전 산 업	△6.1	12.8	11.0	13.3	9.5
농 립 어 업	△6.6	2.7	4.7	1.6	△1.7
제 조 업	△7.4	27.2	21.8	23.0	16.8
서 비 스 업	△7.2	14.4	11.7	11.7	10.2

자료: 재정경제부

- 6월 총통화(M₂)증가율은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민간신용확대로 전년동월보다 36.4% 증가하였고 7월은 37.8% 증가하였음. 8월에는 신용경색에 따른 대기업 여신축소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35.1%를 기록함.
- 본원통화의 증가율 역시 5~7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8월들어 21.4%로 증가율이 둔화됨.

통화지표(평잔기준)

(단위: 전년동월대비, %)

	1999	2000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p
M1	12.9	21.2	17.9	18.2	19.0	13.7
M2	27.9	29.6	33.6	36.4	37.8	35.1
MCT	7.7	15.5	16.4	17.2	17.4	15.9
본원통화주	12.1	21.4	21.8	22.6	24.4	21.4

MCT=M₂+CD+금전신탁

자료: 한국은행.

주: 증감율

- 3/4분기 중 시중금리는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고 있으나 단기금리는 큰 변화가 없음. 10%에 달하던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정부의 기업자금 안정대책 발표로 다소 하락한 9%를 기록.
- 한국은행은 10월 6일 단기 콜금리를 0.25% 인상한 5.25%로 고시하였음. 이는 소비자물가가 1.5%상승하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가 벌어짐에 따라 자금의 단기운용 현상이 나타나 자금조달의 불안정을 야기하였기 때문임.

시중자금사정

단위: 월평균, %

	1999	2000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콜 금 리	4.9	5.0	5.0	5.0	5.1	5.1
CD유통수익률	6.8	7.6	7.1	7.2	7.2	7.0
회사채유통수익률	8.9	10.0	9.9	9.7	9.1	9.0

자료: 재정경제부

- 4월 평균 1,109.8원이던 달러대비 원화의 환율은 5월과 6월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8월들어 평균 1,114.6원을 기록하였음. 환율하락은 기업의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직접투자 유치가 꾸준히 이어짐으로써 자본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였기 때문임.

분기별 달러 환율

단위: 원(평균환율), %(전년동월대비)

	1999	2000				
	연간	1/4	2/4	6월	7월	8월
대미환율	1,189.5	1,125.7	1,116.2	1,118.7	1,114.9	1,114.6
증감율(%)	△15.0	△6.1	△6.3	△4.4	△6.0	△7.1

자료: 재정경제부

- 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과 신용경색 및 경기
선행지수의 연속 하락에 따라 금년 4/4분기 성장세의 둔화속도가 빨
라질 것이며 2001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반영 및 임금인상,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확
대로 금년에는 2%, 내년에는 3%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함.
- 경상수지는 내년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입수요
가 급증하고 있어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발표 시기	경 제 성 장 (%)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실 업 률 (%)	경 상 수 지 흑 자 (억 달러)	
			2000	2001	2000	2001	2000	2000	2001
국내 기관	LG경 제 연구원	8	8.8	6.8	2.0	3.0	4.1	112	49
	한국 경제 연구원	9	8.5	5.3	2.4	3.8	-	70.3	13.5
국외 기관	WEFA	9	8.2	6.0	1.1	4.9	-	183	143

2. 물 가

- 3/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년동분기 대비 2.6%, 전기대비 0.8% 상승함
으로써 그간의 지속적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줌.
- 특히 전력·수도·가스의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9.5% 상승하
였으며 공산품은 2.9% 상승하였음. 농림수산품은 2/4분기에 이어 3/4
분기에도 하락(△1.5%)하였음.
- 전기(월)대비로는 농림수산품이 0.4% 하락한 반면 그 외 품목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국제유가에 민감한 전력·수도·가스는 0.5% 상승함.
- 농림수산품은 태풍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9월들어 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품목별 생산자 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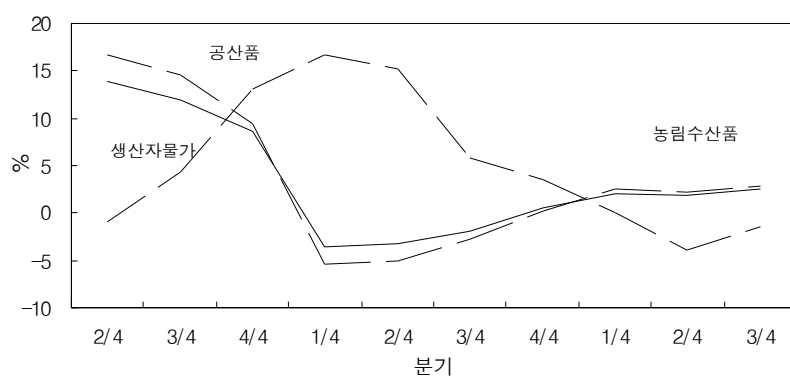
	1999	2000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농림수산물	10.1	0.1 (3.4)	△3.9 (△3.8)	△1.5 (△0.4)	0.8 (△1.5)	△3.6 (△1.0)	△1.3 (2.8)
광 산 품	1.1	△0.6 (0.9)	1.8 (0.2)	5.5 (2.1)	3.8 (0.5)	7.3 (3.4)	5.3 (△1.7)
공 산 품	△3.3	2.6 (△0.4)	2.2 (△0.1)	2.9 (0.9)	3.0 (0.2)	2.9 (0.3)	2.8 (0.6)
전력수도가스	0.5	7.2 (3.3)	9.3 (1.0)	9.5 (0.5)	10.0 (0.0)	9.2 (0.0)	9.2 (0.0)
서비스	△2.1	1.1 (△0.2)	1.3 (0.3)	2.0 (1.3)	2.2 (1.0)	2.0 (0.2)	1.9 (0.0)
원 재 료	△7.6	32.4 (3.4)	22.9 0.1	20.0 (4.7)	28.1 (3.1)	17.7 (△2.1)	15.0 (1.1)
중 간 재	△9.2	4.0 (△0.5)	4.5 0.2	4.9 (1.1)	5.8 (0.0)	4.5 (0.4)	4.3 (0.8)
최 종 재	△0.8	△0.7 (△0.7)	△1.4 △0.9	△0.6 (0.5)	△0.1 (△0.3)	△1.1 (0.1)	△0.6 (0.9)
총지수	△2.1	2.1 (△0.1)	1.9 (△0.1)	2.6 (0.8)	2.9 (0.2)	2.5 (0.3)	2.5 (0.6)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기(월)대비

- 생산자물가를 가공단계별로 보면 원재료가 유가상승으로 인해 9월중 15.0%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중간재는 4.3% 상승하여 4/4분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소비자 물가는 총지수가 3.2%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품은 4.3%, 공업제품은 2%, 서비스는 3.8% 상승하였음.

품목별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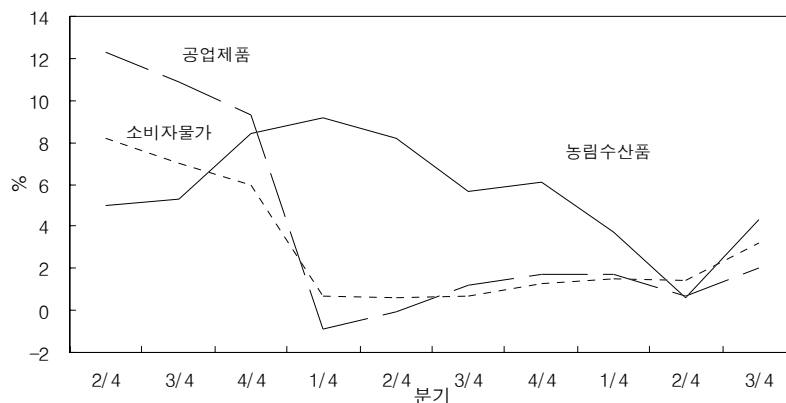
	1999	2000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상 품	2.3	2.2 (△0.2)	0.7 (△1.1)	2.6 (2.1)	2.7 (0.2)	1.7 (1.0)	3.4 (2.1)
농림수산물	7.2	3.7 (1.1)	0.6 (△3.0)	4.3 (3.6)	6.5 (0.7)	0.9 (1.2)	5.6 (5.5)
공업제품	0.5	1.7 (△0.6)	0.7 (△0.3)	2.0 (1.6)	1.3 (△0.1)	2.1 (1.0)	2.4 (0.6)
서비스	△0.8	0.9 (0.8)	2.3 (1.4)	3.8 (1.2)	3.0 (0.4)	3.7 (0.6)	4.7 (0.9)
집세	△4.1	△2.8 (0.0)	△1.1 (0.5)	0.4 (0.6)	△0.1 (0.2)	0.5 (0.2)	0.9 (0.2)
공공서비스	2.2	3.9 (1.3)	5.2 (2.1)	8.9 (3.6)	6.6 (1.3)	8.5 (1.9)	11.4 (2.6)
개인서비스	△1.0	0.9 (0.9)	2.3 (1.3)	2.5 (0.1)	2.4 (0.0)	2.5 (0.1)	2.5 (0.1)
총지수	0.8	1.5 (0.3)	1.4 (0.1)	3.2 (1.7)	2.9 (0.3)	2.7 (0.8)	3.9 (1.5)

자료: 통계청

주: ()는 전기(월) 대비

- 서비스 중 집세는 그간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하여 0.4%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는 8.9% 상승하여 여러 품목들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전기(월)대비로는 농림수산품이 3.6%, 공업제품은 1.6%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공공서비스는 7월 1.3%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이 가속되어 9월에는 2.6% 증가하였음.

품목별 소비자물가



- 수출물가는 3/4분기에도 1.1% 하락하여 2000년들어 3분기 연속 하락하였음. 다만 전기대비로는 0.3% 상승하여 다소 교역조건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농림수산품은 2/4분기 2%하락한 데 이어 3/4분기에는 12.1%로 크게 하락하였음. 공산품은 3/4분기 0.9% 하락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0.4% 상승하여 하락세가 멈추었음.
- 2/4분기에 5.7% 상승한 원자재는 3/4분기에도 4.7% 상승하였으며 전기대비로도 그간의 하락세가 3/4분기 들어 1.2%의 상승세로 돌아섰음.
- 자본재의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7.8% 하락하였고 전기대비로도 1.4% 하락하여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소비재도 수출물가가 6.9% 악화되었으나 전기대비로는 0.7% 하락하여 하락속도가 감소하고 있음.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연간	1/4	2/4	3/4
농림수산물	△5.6	3.4 (△7.5)	△2.0 (△4.3)	△12.1 (△6.9)
공 산 품	△19.0	△0.2 (△2.8)	△1.0 (△1.1)	△0.9 (0.4)
원 자 재	△18.7	7.3 (△1.5)	5.7 (△0.9)	4.7 (1.2)
자 본 재	△22.2	△9.2 (△4.6)	△8.3 (△1.1)	△7.8 (△1.4)
소 비 재	△17.9	△6.8 (△4.3)	△7.6 (△1.6)	△6.9 (△0.7)
총지수	△18.9	△0.2 (△2.9)	△1.0 (△1.1)	△1.1 (0.3)

자료: 한국은행
주: ()는 전기대비

- 수입물가는 2/4분기 8.8% 상승한 데 이어 3/4분기 6.4% 상승하였음. 전기대비로는 2/4분기 0.4% 하락하였으나 3/4분기 이후 2.3%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음.
- 농림수산품의 수입물가는 2분기 연속하락하여 3/4분기에는 2% 하락하였으며 공산품의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 1.6% 상승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0.8% 상승함으로써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요인이 상쇄되고 수입물가가 상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국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2/4분기 원자재의 수입물가는 12.8% 상승하였고 3/4분기에는 9.4% 상승하였음.

- 반면 자본재는 전기대비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소비재는 2/4분기에는 1.3%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는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3/4분기에는 전기대비로도 4% 오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재 역시 원화의 평가절상 효과가 사라지고 수입물가의 오름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1999	2000		
	연간	1/4	2/4	3/4
농림수산물	△17.0	△4.2 (△1.7)	△3.0 (△0.7)	△2.0 (△1.1)
공산품	△14.1	3.8 (△1.9)	3.2 (△0.7)	1.6 (0.8)
원자재	△13.2	1.7 (△0.4)	12.8 (0.0)	9.4 (2.8)
자본재	△8.3	△5.3 (△3.8)	△4.7 (△1.4)	△5.3 (△0.9)
소비재	△8.5	0.4 (△2.3)	△1.3 (△1.7)	1.7 (4.0)
총지수	△12.1	12.3 (△1.0)	8.8 (△0.4)	6.4 (2.3)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는 전기대비

3. 소 비

- 8월의 도소매판매는 자동차판매가 둔화되고 음식료품, 사무용기계등의 판매 증가로 8.1% 신장되었으며 7월에는 8.3% 증가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전기대비로 보면 1/4분기 이후 판매액 신장률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4/4분기 이후에는 소비활동이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0					
	1/4	2/4	5월	6월	7월p	8월p
도소매 판매	14.4 (3.8)	12.4 (0.3)	14.7 (1.5)	11.1 (1.0)	8.3 (0.6)	8.1 (0.5)
내수용 소비재출하	17.7	13.5	19.8	4.2	1.1	2.5
(내구재)	35.8	22.0	36.0	△6.2	△8.9	△15.7
(비내구재)	8.4	9.2	11.0	10.0	7.2	13.6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주: ()는 전기(월)대비

-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2/4분기 10.9% 증가함으로써 IMF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월평균 233만 1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소비지출은 1/4분기보다 증가율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성향의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목별로는 주거비가 26.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식료품비는 10.4% 증가하였는데 특히 외식비의 지출은 27% 증가하였음. 통신비는 36.5% 증가하였으며 가구가사 지출은 20.6%, 교육비는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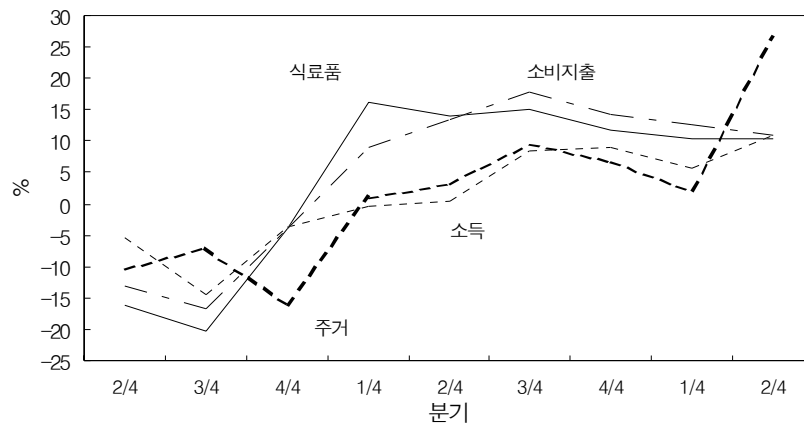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소득	6.7	4.3	5.7	10.9
소비지출	10.7	13.5	12.7	11.0
식료품	14.3	14.1	10.5	10.4
주거	8.0	5.1	2.1	26.3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 용

- 8월의 실업률은 4.1%이며 전월대비로는 0.4% 증가하였음. 실업자는 818천명으로 1.7%가 증가하였고 취업자는 1.2% 감소한 21,253천명임.
-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여름 휴가로 인해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데다 경제성장율이 하반기 이후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경제활동인구가 22,071천명으로 전월보다 1% 감소하였음에도 실업률이 높아짐으로써 총취업자는 1.2% 감소한 21,253천명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전년동월 대비 1.6%가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0.6%가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하고 전월대비 1.7% 감소한 4,184천명임.
- 전년동월 대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음.

고용활동

단위: 천명, %

	1999	2000			전월대비 증감
	연간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1,634	22,183	22,305	22,071	△1.0
(경제활동참가율)	60.5	61.4	61.7	61.0	△0.7
취업자	20,281	21,390	21,501	21,253	△1.2
·농림어업	2,349	2,563	2,540	2,554	0.6
·광공업	4,026	4,225	4,275	4,203	△1.7
(제조업)	4,006	4,207	4,257	4,184	△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3,906	14,602	14,686	14,496	△1.3
(건설업)	1,476	1,651	1,658	1,625	△2.0
실업자	1,353	793	804	818	1.7
실업률(계절조정)	6.3	3.8	3.7	4.1	0.4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IV. 농촌경제 동향⁵⁾

1. 농산물가

- 8월의 농가판매가격은 가격이 오른 품목과 내린 품목의 수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2.7% 하락하였음.
- 곡물은 서리가 26%하락하였으나 비중이 큰 미곡이 6.4% 오르고 잡곡과 두류가 각각 7.8%, 5.5%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5.7%상승하였음. 전월대비로는 미곡이 2.6%로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맥류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두류는 27.5%로 크게 하락하였음.
- 청과물은 15.8% 하락하였는데 채소가 15.6% 하락하고 과실이 16.1% 하락한 데 따른 것임. 전월대비로는 채소가 1.1% 올랐으나 과실이 8% 하락하고 과채류의 농가판매가격이 10.4% 하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 하락하였음.
- 축산물은 유란이 그간의 하락세에서 7월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가축류가 2.6% 하락함으로써 농가판매가격이 전반적으로 2% 하락하였음. 전월대비로는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8월 중 3.3% 상승하였음.
- 그 외에 화훼류가 30%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용작물의 판매가격 상승률이 14.4%에 이른 결과 기타농산물은 9.5% 상승하였음. 전월대비로는 화훼류가 7월의 큰 폭의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6% 상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증하였으나 특용작물의 가격 하락폭이 4.7%에 달하여 3.9%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9.8	2000.7	2000.8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17.1	114.1	107.8	△2.7	△0.2
곡물	323.3	132.2	137.3	135.3	5.7	1.8
미 곡	288.7	134.9	140.0	137.0	6.4	2.6
맥 류	13.6	110.8	115.2	115.2	4.0	0.0
잡 곡	3.7	116.4	125.6	125.5	7.8	△0.1
두 류	7.8	137.4	146.0	144.9	5.5	△0.8
서 류	9.5	83.0	84.7	61.4	△26.0	△27.5
청 과 물	296.6	116.8	100.3	98.3	△15.8	△2.0
채 소	208.5	113.8	95.0	96.0	△15.6	1.1
과 실	88.1	123.9	112.9	103.9	△16.1	△8.0
축 산 물	322.3	105.6	103.9	103.5	△2.0	△0.4
가 축	294.7	104.6	102.7	101.9	△2.6	△0.8
유 란	27.6	116.8	116.5	120.3	3.0	3.3
기타농산물	57.8	98.0	111.7	107.3	9.5	△3.9
특용작물	48.8	99.9	119.9	114.3	14.4	△4.7
화 훼	6.7	81.2	53.6	56.8	△30.0	6.0
부 산 물	2.3	106.3	106.3	106.3	0.0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8월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5.9%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3%로 큰 변화가 없음. 전반적으로 내린 품목보다 오른 품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가계용품은 5.1% 상승하였는데 주거비가 5.2% 하락한 반면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가계광열비가 14.2% 상승하였고 보건의료비가 15.1%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9.8	2000.7	2000.8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22.1	126.9	128.5	5.2	1.3
가 계 용 품	524.9	120.6	124.5	126.8	5.1	1.8
식 료 품	97.6	121.5	121.8	123.2	1.4	1.1
피 복 비	39.1	114.1	115.9	115.8	1.5	△0.1
주 거 비	48.7	98.7	93.4	93.6	△5.2	0.2
가 계 광 열	35.6	155.2	170.7	177.2	14.2	3.8
보 건 의 료	69.8	120.3	131.3	138.5	15.1	5.5
교육교양오락	121.5	123.6	130.5	130.6	5.7	0.1
교 통 통 신	76.5	117.4	118.0	122.4	4.3	3.7
기 타 잡 비	36.1	117.2	117.9	118.0	0.7	0.1
농 업 용 품	403.7	124.9	127.8	128.7	3.0	0.7
종 자 류	17.4	100.7	100.7	100.7	0.0	0.0
비 료 류	24.3	149.6	149.6	149.6	0.0	0.0
농 약 류	24.6	130.3	129.4	129.4	△0.7	0.0
농 기 구	83.6	153.7	154.1	154.1	0.3	0.0
영 농 광 열	13.9	141.2	165.2	173.0	19.5	4.7
가 축 류	129.9	103.0	122.8	124.8	7.5	1.6
사 료 류	77.7	107.5	104.9	104.9	△2.4	0.0
영 농 자 재	32.3	109.5	115.5	115.5	5.5	0.0
농 촌 임 료 금	71.4	117.1	139.4	139.7	19.3	0.2
농 업 노 임	31.7	124.7	141.5	142.1	14.0	0.4
기 타 임 금	2.8	100.4	110.7	110.8	10.4	0.1
도 정 료	8.2	110.1	173.4	173.4	57.5	0.0
농기계 임차	28.7	112.3	130.2	130.2	15.9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농업용품은 사료가격이 2.4%하락하고 농약류가 0.7% 내렸음에도 영농광열비가 19.5%, 가축류가 7.5% 상승하여 구입가격이 전반적으로 3% 상승하였음.
- 농촌임료금은 19.3%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도정료가 57.5% 농기계임차료는 15.9% 상승하였으며 농업노임 역시 1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2. 농가교역조건

- 8월의 농가교역조건은 구입가격이 추석수요가 사라짐에 따라 0.2% 하락한 반면 구입가격은 1.3% 상승하여 전월대비 6.7% 악화되었으며 공산품의 물가상승보다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더디게 진행되어 전년동월 대비로는 12.1% 악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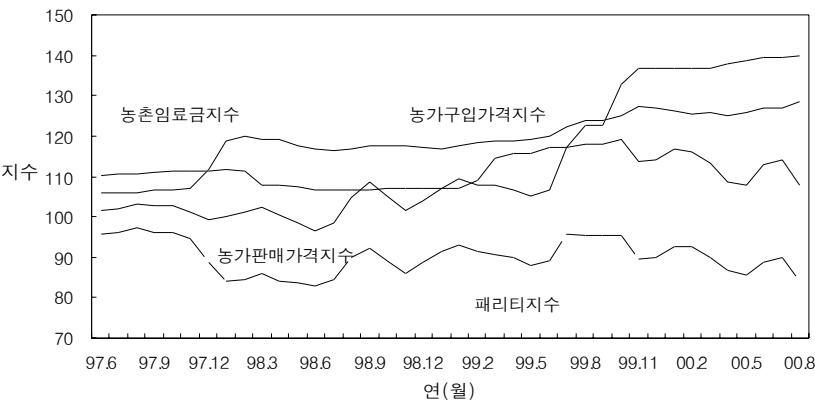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1999.8	2000.6	2000.7	2000.8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17.1	112.8	114.1	107.8	△2.7	△0.2
농가구입가격지수(B)	122.1	126.9	126.9	128.5	5.2	1.3
패리티지수(A/B*100)	95.4	88.9	89.9	83.9	△12.1	△6.7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1997년말 이후 교역조건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의 경기회복이 도시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산물의 교역조건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부문과 비교할 때 금융위기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됨.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8월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7% 증가한 2,476천명이며 전산업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임. 7월은 2,459천명으로 전산업대비 비중은 11.4%임.

농림업 취업자수동향

단위: 천명

	1999	1999.8	2000		증감률(%)	
			7월	8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경제활동인구	21,634	21,767	22,305	22,071	1.4	△1.0
전산업취업자	20,281	20,527	21,501	21,253	3.5	△5.8
농림업취업자	2,264	2,516	2,459	2,476	△1.6	0.7

자료: 통계청

- 귀농가구수는 6월보다 29호가 줄어든 37호이며 7월까지 누계로는 911호임. 1월에 221호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귀농가구 동향

단위: 호

	1999	2000					증감율	
	7월	1~7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귀농가구수	176	871	91	66	37		△79.0	△43.9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2000년 8월까지 농림축수물 수출은 1,944.7백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중 농산물의 수출은 19.8%로 크게 신장되었으나 축산물의 수출이 구제역의 여파로 52.1% 감소함으로써 농축산물수출은 1.4% 감소하였음. 임산물 수출은 116.7백만달러로 5.4% 감소하였음.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1999. 1~8월	2000. 1~8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3,229.7	1,939.1	1,944.7	0.3
농림축산물	1,713.5	980.2	961.9	△1.9
농축산물	1,409.8	856.8	845.2	△1.4
- 농산물	1,002.0	604.8	724.4	19.8
- 축산물	407.8	252.0	120.8	△52.1
임 산 물	303.8	123.3	116.7	△5.4
수 산 물	1516.2	958.9	982.8	2.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일본에 대한 수출은 23.8% 증가하여 303.7백만달러였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19.8%증가한 71.1백만달러였음.
-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의 경우 78,136천달러로 62.6%가 감소한 금액을 수출하였으며 닭고기는 53% 증가한 1,906천달러를 수출하였음. 3/4분기에 동남아로 돼지고기 수출이 소량 재개되었으나 극히 소량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됨.
- 김치 수출은 14.1%가 증가하여 53,310천달러를 수출하였고 홍삼은 세계 인삼유통의 60%를 차지하는 홍콩시장의 부진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36.6%가 감소한 15,318천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음.
- 사과와 배의 수출은 큰 폭으로 신장되어 각각 94.2%, 98.3% 증가함으

로써 수출금액이 전년동기간 대비 약 두배에 이르렀음. 감귤과 딸기 역시 27.5%, 12.3% 수출증가를 보였고 특히 토마토의 경우는 128.5%의 높은 수출증가를 기록하였음.

- 오이의 경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고추는 100%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여 8월까지 누계로 20,322천달러를 수출하였음. 그 외 백합과 장미, 버섯류도 두자리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일본에 대한 사과수출이 188.1% 증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출도 200%를 넘는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냈음. 배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수출액이 362천달러, 165천달러를 나타냈음.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품목	수출액(천달러)					증감율(%) '00/'99
	1997	1998	1999	1999. 1~8	2000.1~8	
돼지고기	243,899	311,777	340,451	208,996	78,136	△62.6
닭고기	1,227	1,605	2,116	1,246	1,906	53.0
김치	39,655	43,931	79,245	46,736	53,310	14.1
홍삼	35,443	31,801	41,419	24,167	15,318	△36.6
백삼	7,863	7,804	6,091	2,521	2,405	△4.6
사과	6,345	3,538	1,674	489	950	94.2
배	9,180	7,731	11,763	960	1,904	98.3
감귤	2,955	5,045	6,593	2,291	2,922	27.5
딸기	2,743	4,096	7,857	7,498	8,420	12.3
토마토	3,742	7,592	17,504	6,263	14,312	128.5
오이	3,184	5,489	9,293	4,045	4,083	0.9
고추	5,067	6,890	15,153	10,158	20,322	100.1
백합	2,054	3,358	3,058	1614	2,103	30.3
장미	48	3,420	6,471	3,859	6,805	76.4
버섯류	1,039	1,771	4,423	2,556	3,624	41.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수입동향

- 8월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5,613.1백만달러로 17.5% 증가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3,320.5백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축산물 수입은 1,124.1백만달러로 47.5% 증가하였음. 임산물은 21.4%가 증가한 1,168.4백만달러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6%가 증가하여 1,692,169천달러에 그친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72.5%가 증가하여 1,270,815천달러에 달하였음.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침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1999. 1~8월	2000. 1~8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8,620.4	5,511.2	6,534.3	18.6
농림축산물	7,452.2	4,775.3	5,613.1	17.5
농축산물	5,926.5	3,812.6	4,444.6	16.6
- 농산물	4,681.2	3,050.6	3,320.5	8.8
- 축산물	1,245.2	762.0	1,124.1	47.5
임 산 물	1,525.7	962.6	1,168.4	21.4
수 산 물	1,168.2	735.9	921.3	25.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열대과일 중 포도, 파인애플의 수입액은 전년동기간 대비 9.2%, 1.8% 감소하였으나 오렌지는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60%를 넘는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여 8월누계로 95,132천달러를 수입함.
- 키위의 수입은 15.8%증가하여 5,463천달러를 수입하였고 레몬은 3,351천달러를 수입하여 22.2% 증가하였음.

- 농산물수입을 주도한 축산물 중 쇠고기의 수입은 80.9%증가하였고 수입액은 524,497천달러임. 돼지고기는 194,426천달러를 수입하여 27.4%증가하였고 닭고기는 38,740천달러를 수입하였음.
- 곡물 중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6.4%, 19.5% 증가한 608,544천달러, 212,298천달러를 수입하였음. 반면 밀은 12.5%가 감소한 325,642천달러에 그침.

열대과일 수입동향

품 목	수입액(천달러)					
	1997	1998	1999	1999.1~8월	2000.1~8월	증감율(%)
오렌지	92,685	68,605	82,785	59,343	95,132	60.3
키위	14,500	5,192	7,521	4,718	5,463	15.8
포도	23,152	13,172	16,059	28,338	25,726	△9.2
파인애플	22,096	11,116	19,574	13,754	13,503	△1.8
바나나	58,368	37,801	71,856	53,601	56,415	5.3
레몬	5,265	3,367	4,449	2,742	3,351	22.2

- 곡물의 수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무려 359.7%증가한 456.0백만달러에 이르렀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49.1%가 감소한 312.7백만달러에 그쳤음.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품 목	수입액(천달러)					
	1997	1998	1999	1999.1~8	2000.1~8	증감율(%)
쇠고기	479,844	268,402	505,247	289,946	524,497	80.9
돼지고기	236,115	142,623	226,425	152,615	194,426	27.4
닭고기	31,227	19,735	45,940	28,274	38,740	37.0
옥수수	1,253,772	913,829	887,467	572,163	608,544	6.4
밀	594,236	663,534	533,892	372,123	325,642	△12.5
대두	514,629	379,351	312,015	177,620	212,298	19.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3. 중국농산물 수입동향

- 금년 8월까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93.2% 증가하였음. 이중 농산물이 35,214천달러, 축산물이 1,808천달러, 임산물은 39,980천달러, 수산물은 62,120천달러로서 전체 139,122천달러였음.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8월까지 1,270,815천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106.5% 증가하였음. 농산물은 733,527천달러로 120.1%가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12,983천달러로 44.5%가 증가하였음.
- 중국산 농산물은 IMF 금융위기였던 19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다시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기존 교역대상국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어 국내 수입업자들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들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1995/8	1996/8	1997/8	1998/8	1999/8	2000/8	전년대비 증감율
농산물	300,798	366,676	531,947	477,201	333,279	733,527	120.1
축산물	21,586	25,161	31,224	8,190	8,986	12,983	44.5
임산물	114,158	152,694	193,405	81,160	131,431	186,979	42.3
수산물	78,787	141,292	173,314	111,628	263,564	337,326	30.0
계	515,329	685,823	929,890	678,179	737,260	1,270,815	72.4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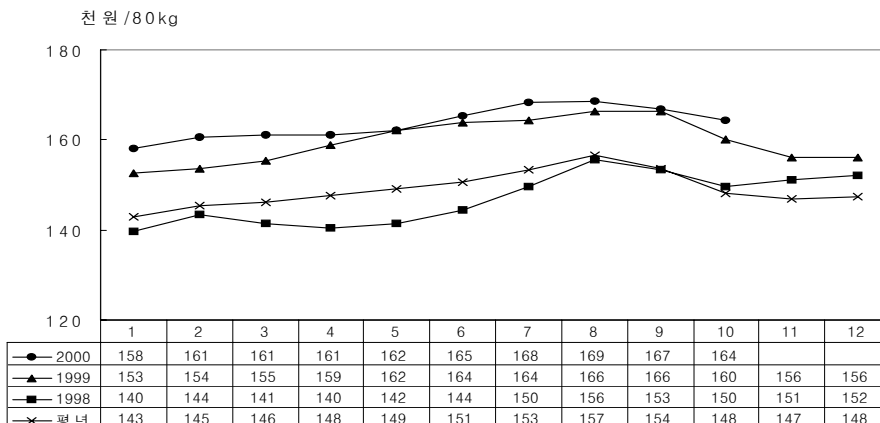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1.1. 쌀¹⁾

- 농림부의 2000 양곡연도 양곡류 수급전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로 쌀 자급도는 전년대비 6.1% 포인트 증가한 10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4년 연속된 풍작으로 양곡연도 말 재고량은 10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쌀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임.
- 쌀 도매가격(호남미, 상품 기준)은 지난해 수확기 가격(11월) 이후 계속 상승하였으나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10월에는 16만 4천원/80kg으로 하락함. 10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평년동기대비 11%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2% 상승한 수준임.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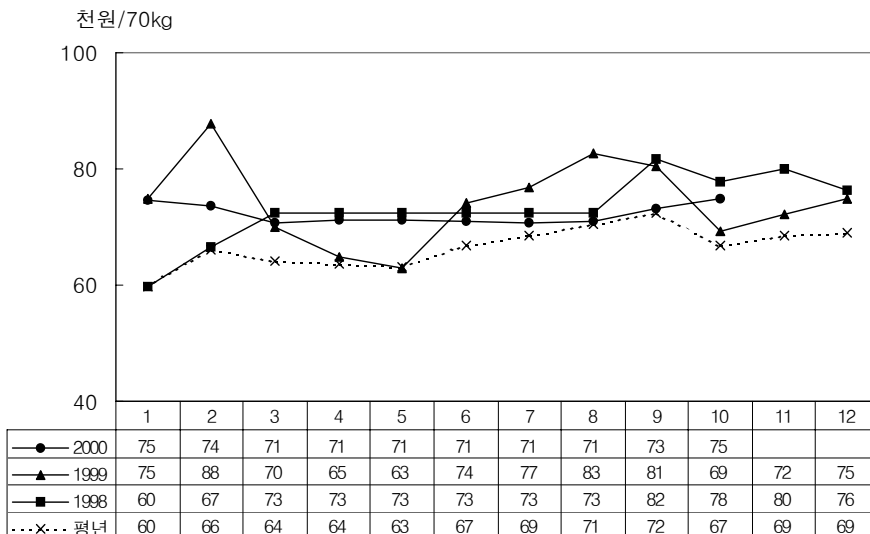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 이 자료는 김태훈 책임연구원(taehu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1.2. 보 리

- 2001년산 보리생산량은 20만 9천톤에 이를 전망이다(농림부). 이것은 농협의 2001년산 맥류 계약재배 계획면적을 감안한 재배면적 7만 6천ha에 평년단수 275kg/10a을 적용한 결과임.
- 2000년산 보리수매가 6. 15~7.31일에 실시되었으며 가격은 40kg 1등급기준(조곡)으로 겉보리는 3만 280원, 쌀보리는 3만 4,320원, 맥주보리는 3만 8,630원으로 결정됨.
- 2000년 3월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던 보리가격은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7만 5천원/70kg(쌀보리, 상품 기준)으로 상승함. 2000년 10월 보리가격은 평년동기대비 12% 높은 수준이며 전년동기대비 8% 상승함.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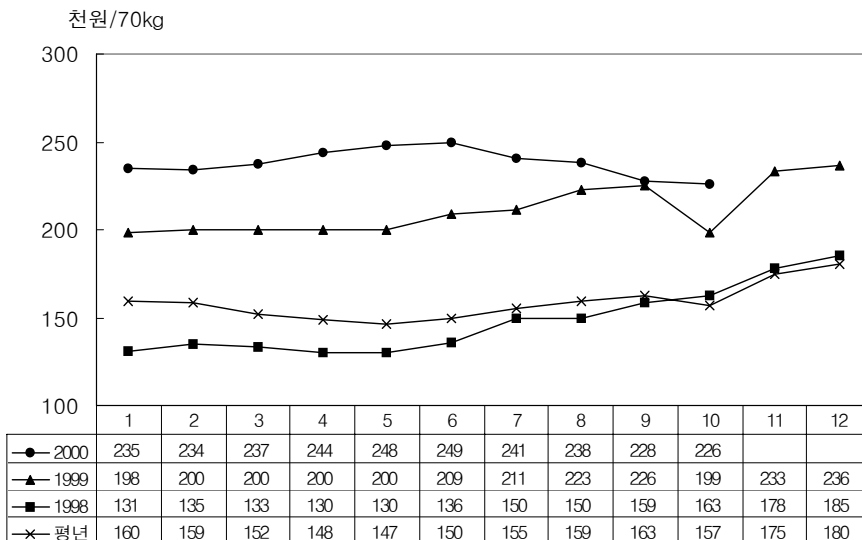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2000년 콩 재배면적(품관원 7월 조사치)은 8만 984ha로 전년동기 조사치보다 2.3% 감소하고 1999년 실제 재배면적보다 6천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1~9월 대두 수입량은 약 97만톤으로 전년동기간의 93만 2천톤보다 3만 8천톤이 더 수입됨.
- 1999년 6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한 대두 도매가격은 2000년 6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0월 현재 70kg당 22만 6천원(상품 기준)으로 하락함. 2000년 10월 도매가격은 평년대비 44%상승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14% 높은 수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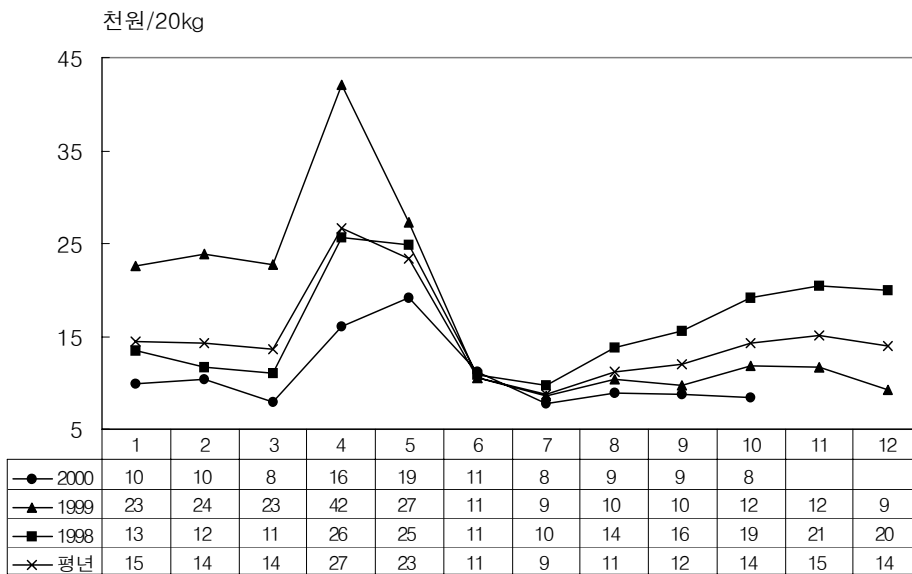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감 자

- 2000년 1~9월 감자 수입량은 3만 8천톤으로 지난해 이 기간의 수입량 4만 2천톤보다 4천톤 가량 더 수입됨.
- 2000년 5월에 1만 9천원/20kg(상품)까지 상승한 감자 도매가격은 6월부터 하락하여 10월 현재 8천원/20kg(상품)에 이름. 2000년 10월 현재 감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8%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29%하락한 수준임.

감자 도매가격 동향 (슈퍼리어,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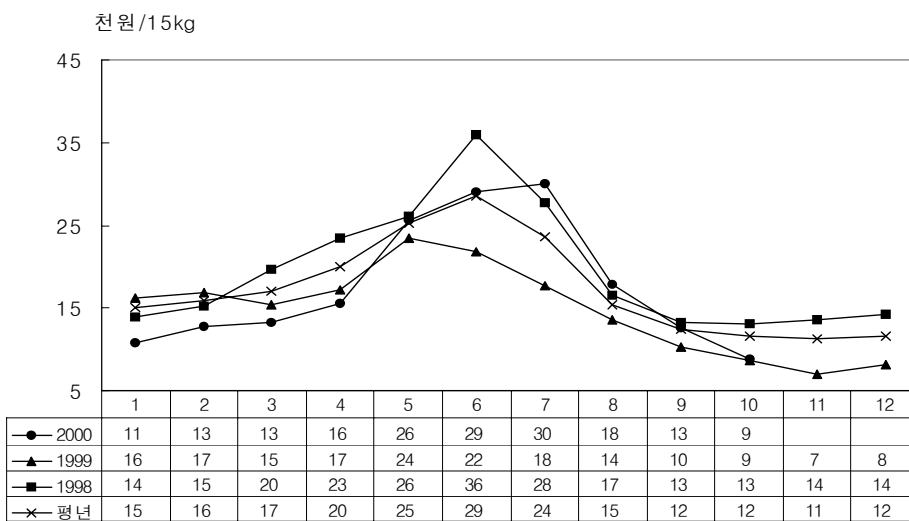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고구마

- 2000년 고구마 재배면적은 1만 6천ha로(품관원 7월조사치) 지난해 이 기간 조사치 2만ha보다 4천ha 증가함.

- 2000년 1~9월 고구마 수입량은 25톤으로 전년동기간의 45톤에 비해 20톤 가량 증가함.
- 고구마 도매가격은 2000년 7월에 3만원/15kg(상품)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15kg당 9천원에 이름. 2000년 10월 현재 고구마 도매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4%하락한 수준이나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7~99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6. 사료곡물

- 2000년 1~8월 누계기준 옥수수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4.8%하락함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량은 431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증가함. 사료용 밀의 경우 동기간에 수입단가가 13%상승하여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7%감소함.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단위			1996	1997	1998	1999	1999.1~8	2000.1~8
옥수수	수입량	천톤	6,802	6,524	5,335	6,122	3,811	4,311
	단가	US\$/톤	179	148	125	108	110	105
	수입액	백만US\$	1,217	965	667	661	419	451
밀	수입량	천톤	958	1,096	2,349	1,902	1,470	635
	단가	US\$/톤	201	141	115	98	96	109
	수입액	백만US\$	192	154	271	186	141	69
계	수입량	천톤	7,759	7,620	7,684	8,024	5,281	4,946
	단가	US\$/톤	182	147	122	106	106	105
	수입액	백만US\$	1,410	1,119	938	847	560	52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체 사료용 곡물은 2000년 1~8월 누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한 495만톤이 수입됨.

2. 채소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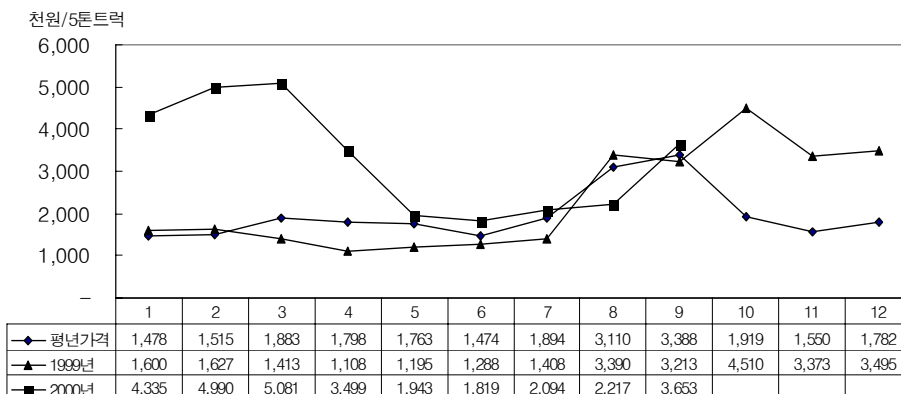
2.1. 배 추

- 배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655천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10% 높은 수준이지만, 평년 3/4분기보다는 5% 낮은 수준임.
- 9월 상순 이후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추석 수요가 증가하였고, 8월 하순과 9월 중순의 태풍 및 호우의 영향으로 출하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 이 자료는 김연중 책임연구원(yjkim@krei.re.kr), 박재민 책임연구원(jmpark@krei.re.kr), 서대석 연구원(dssuh@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 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10월에 출하될 면적이 작년보다 5% 가량 많으나, 단수는 작년보다 낮아 10월에는 상품 5톤트럭당 가격이 작년 10월 가격(상품 451만원)보다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350만원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4% 증가 하나, 작황이 나빠 단수를 평년단수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12%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럴 경우 11~12월의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0% 가량 낮으나, 평년보다는 60% 이상 높은 상품 5톤트럭당 2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월동배추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해남이 12%, 진도가 36% 증가하고, 비주산지였던 무안의 경우 마늘 재배면적의 일부가 월동배추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고, 제주는 작년보다 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단수를 평년단수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1~3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 가격보다 40% 이상 낮은 200만원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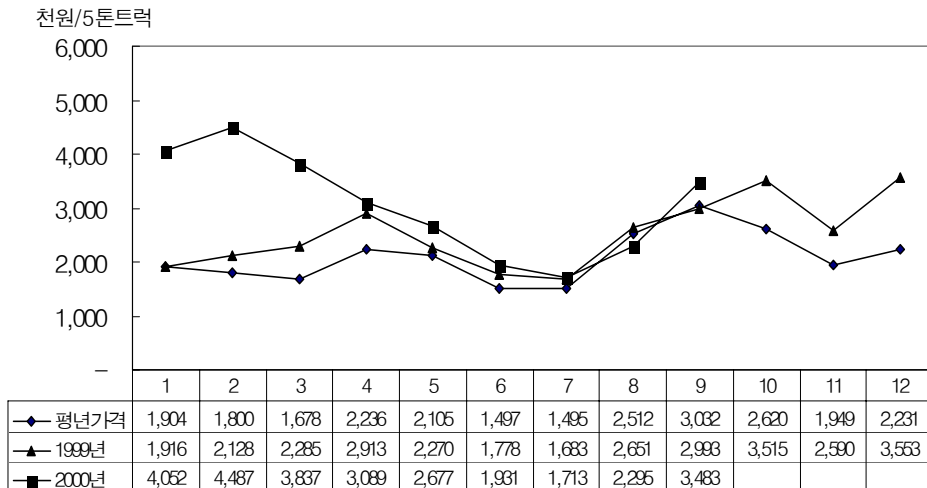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2. 무

- 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497천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3%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3/4분기보다는 6% 높은 수준임.
- 9월 상순 이후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추석 수요가 증가하였고, 8월 하순과 9월 중순의 태풍 및 호우의 영향으로 출하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고랭지무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4% 가량 증가하고, 단수도 작년보다 3% 증가하여, 10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작년 10월보다 약 20% 낮지만, 평년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280만원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가을무 재배면적이 2% 가량 증가하나, 작황이 나빠 단수를 평년보다 3% 낮은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럴 경우 11~12월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0% 이상 높은 상품 5톤트럭당 25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제주도의 경우, 태풍 피해를 입은 감자의 대체작목으로 가을무 면적이 증가하여, 내년 상반기에 제주산 월동무 출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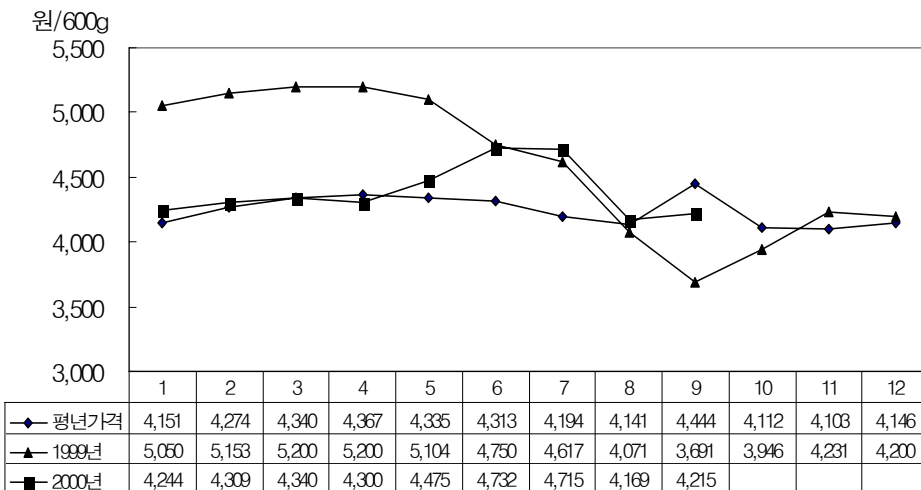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3. 고 추

- 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4,366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3% 낮고, 평년 3/4분기보다 3%, 작년 동기보다 6% 높은 수준임.
- 수확기 가격이 이례적으로 오른 것은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계속된 비와 태풍의 영향으로 금년산 작황이 나빠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가량 감소한 7만 4,471ha이며, 여기에 농림부 및 관측센터의 예상단수 조사결과, 10a당 단수는 255~265kg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금년 생산량은 19만~19만 7천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생산량보다 9~12% 적고, 평년 생산량보다는 3~7% 가량 적은 것임.

- 금년 추정 생산량에 MMA 수입량 5,908톤, 민간수입예상량 5천~1만톤, 이월량 2천톤 등을 더한 총공급량은 20만 3천~21만 5천톤으로 작년산 공급량보다 7~10%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산 고추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5,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여행객 휴대품으로서 무관세로 반입되는 고추 물량은 작년에 5,500톤으로 추정되었으나, 인천세관은 1인당 휴대품 반입물량을 기존의 80kg에서 금년 9월부터는 60kg으로 줄였고, 10월부터는 50kg으로 제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금년의 무관세 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현재 중국산 고추의 민간수입원가는 600g당 약 5,400원, 도매원가는 약 5,600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금년 중국의 고추 재배면적이 늘어나 생산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출하기인 12월부터 중국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고추가격 상승시 민간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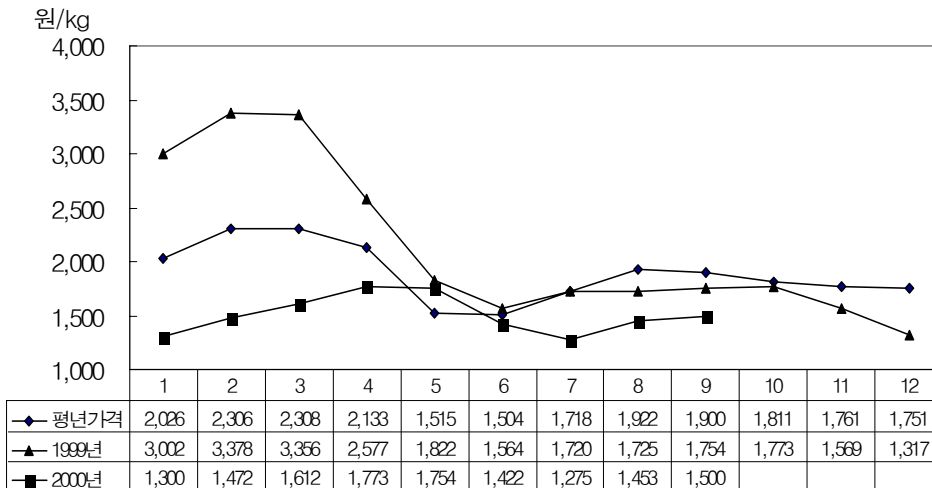
2.4. 마늘

- 마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409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작년 3/4분기보다는 19% 낮고, 평년 동기보다도 24% 낮은 수준임.
-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한 4만 4,941ha, 10a당 단수는 작년보다 7% 감소한 1,056kg임. 생산량은 47만 4천톤으로, 이는 작년보다 2% 적으나 평년보다는 8% 많은 수준임.
- 7월의 한·중 마늘협상결과에 따라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2만톤이 저율관세로 수입될 전망이며, 금년중에 최소시장접근물량(MMA) 1만 2천톤도 수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월량 3천톤 등을 더한 금년산 유통년도(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공급량은 약 51만톤으로 추정됨. 그러나 정부가 MMA 물량을 건조마늘로 수입하고 이월량중 1,500톤을 구매·비축할 계획이므로, 작년 총공급량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 산둥성의 금년산 마늘 생산량이 작년보다 20~30% 감소한 20~22만톤으로 추정되어, 수입쿼터 물량이 다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금년 말까지의 마늘 가격은 중국의 수출 여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2% 감소한 3만 9,6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됨(농림부, 농업관측센터, 9월 15일 조사결과).
- 마늘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것은 농가들이 금년부터 적용되는 중국산 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에 따라 국내 마늘가격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임.
- 재배의향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산 마늘 생산량은 42

만 6천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년 생산량보다 10% 적고, 평년 생산량보다는 4% 많은 수준임.

- 여기에 예상 수입량 3만 4천톤을 더한 총공급량은 46만톤으로 금년산 총공급량 51만톤보다 10% 가량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내년산 마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난지형 상품 kg당 2,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평년 도매가격(1,888원)보다 약 6% 높은 수준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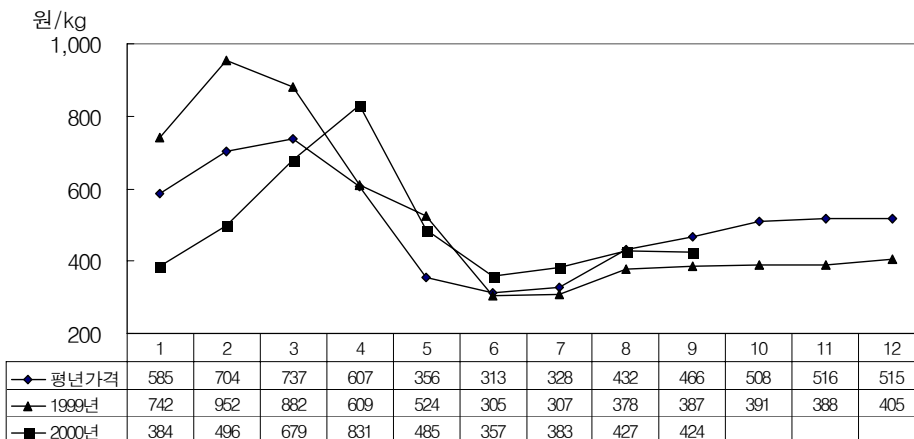
2.5. 양파

- 양파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411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3/4분기보다는 15% 높은 수준이고, 평년 동기보다 7% 높은 수준임.
-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1만 6,773ha, 10a당 단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한 5,232kg임.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87만 8

천톤으로, 이는 작년 생산량보다 6% 적으나 평년 생산량보다는 6% 많은 수준이며, 저온창고 저장량도 작년보다 약 6% 감소한 38~39만 톤으로 조사됨.

- 금년산의 생산량과 저장량이 모두 작년보다 적어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12월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높은 상품 kg당 6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초에도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수입량과 조생종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장물량의 출고를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한 1만 8,300ha 내외가 될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농업관측센터, 9월 15일 조사치).
- 재배의향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산 양파 생산량은 107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년 생산량보다 22%, 평년 생산량보다는 29%나 많은 수준임.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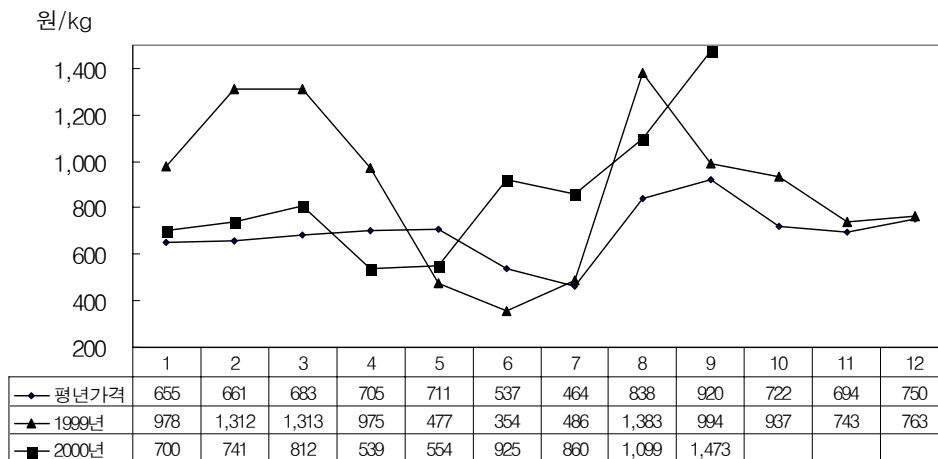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여기에 예상 수입량 1만 8천톤을 더한 총공급량은 109만톤 수준으로, 금년산 총공급량 89만 5천톤보다 22%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내년산 양과 가격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2.6. 대 파

- 대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144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70% 높고, 평년 3/4분기보다도 49% 높은 수준임.
- 9월에 출하된 면적은 작년 같은 시기와 비슷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 강원 2%, 충북 2% 늘었고, 태풍 피해가 컸던 전북이 6%, 충남 3%, 경남 4%, 경북 2% 준 것으로 나타남.
- 10월 이후에 출하될 면적은 작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내년 초에는 6% 가량 많을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남의 내년 초 출하면적이 9% 가량 늘 것으로 조사됨.
- 10월 중순까지 가격은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계속된 비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출하량 감소에 따른 조기출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1,000원 대의 보합세를 형성하다가, 하순에는 작황이 회복될 경우 약보합세를 나타낼 전망.
- 11~12월에는 출하될 면적이 다소 늘어나, 가격은 10월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질 것이나, 평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
- 9~12월의 정식의향면적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2%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내년 초에 출하될 전남지역의 면적이 많아 가격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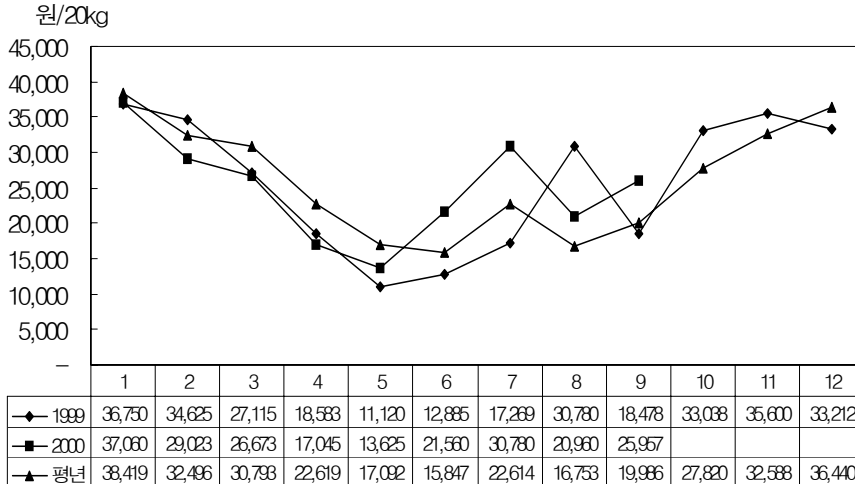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7. 오 이

- 취청 오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20kg당 25,957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3/4분기보다 17% 높고, 평년 3/4분기보다는 15% 높은 수준임. 백다다기 오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5kg당 25,596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3/4분기보다 28% 높고, 평년 3/4분기보다는 22% 높은 수준임.
- 9월에 출하된 전체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4% 적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출하될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정도 적을 것으로 조사됨.
- 계속된 비와 태풍으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했고, 이상 저온과 병해도 겹쳐 9월 출하분의 평균단수는 작년 9월보다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기의 작황이 가장 부진함.
- 10월에 출하될 전체면적도 작년보다 적고 평균단수도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출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0~12월의 전체 정식예정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호남과 영남이 다소 늘고, 다른 지역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남.

오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취청)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 과일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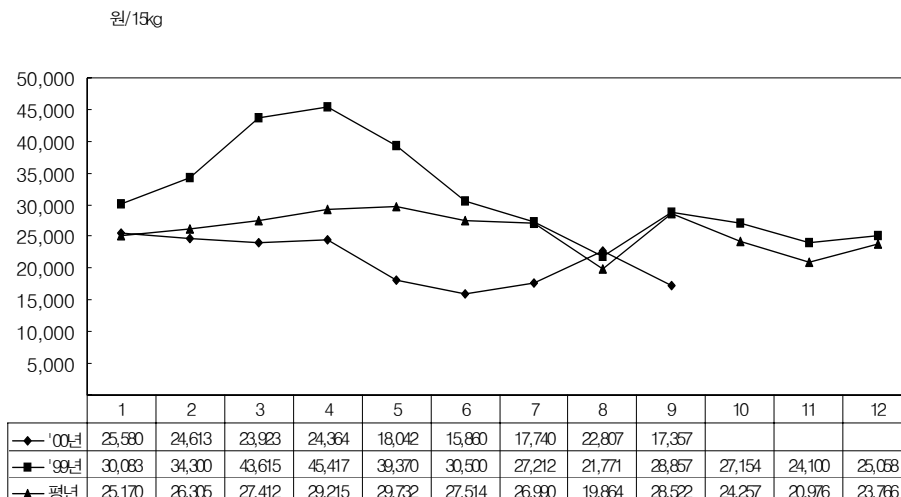
3.1. 사과

- 9월 상순에는 추석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수확시기가 다른 품종보다 빨라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홍로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한 반면, 쓰가루는 평년수준보다 낮아 품종간 가격차이가 컸음. 9월 평균가격은 쓰가루 상품이 15kg당 1만 7,357원으로 작년보다는 9%, 평년보다는 16% 낮은 수준이었음.

3) 이 자료는 이용선 부연구위원(yslee@krei.re.kr), 박준기 책임연구원(jkpark@krei.re.kr), 한석호 연구원(shoha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1만 9,301원으로 2/4분기보다 1% 낮고, 평년 3/4분기보다는 12%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한 2만 8,900ha로 추정되며, 이중 성목 면적은 9% 감소한 2만 1,100ha로 추정됨. 작황 조사결과, 성목 10a당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정도 늘어난 2,185kg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나 금년 사과 생산량은 작년 보다 6% 정도 줄어든 46만 1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홍로는 작년보다 2% 정도 늘어난 반면, 주품종인 후지 재배면적은 10% 정도 줄고, 쓰가루와 홍월은 28%와 5%씩 작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수령별 재배면적은 후지는 주로 6년생 이상의 성목 비율이 88%를 차지하는 반면, 추광과 기타 신품종 등은 1~3년생 유목면적 비율이 22~44% 수준으로 나타나 앞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조생종인 쓰가루는 폐원으로 15년생 이상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유목비중이 적어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 전망임.

사과 도매가격 동향 (후지, 15kg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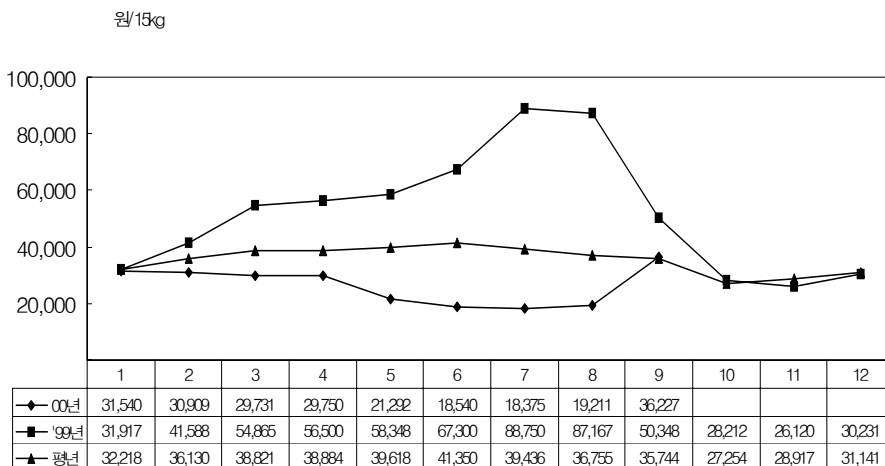


주 : 평년가격은 1995~99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2. 배

- 9월 1일부터 추석 수요를 겨냥하여 금년산 신고품종이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상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조기출하로 완숙되지 못한 배가 출하되어 상품과 중품간의 가격차이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남. 9월 평균 도매가격은 신고 상품이 15kg당 3만 6,227원으로 평년보다 2% 낮고, 작년보다는 28% 낮은 수준이었음.
-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신고 상품 15kg당 2만 3,194원으로 2/4분기보다는 6% 높고, 평년 2/4분기보다는 35%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배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정도 늘어난 2만 6,300ha, 성목면적은 14% 정도 늘어난 1만 3,300ha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성목 10a당 생산량은 작년보다 6% 정도 늘어난 2,338kg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나 금년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31만 1천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배 도매가격 동향 (신고, 15kg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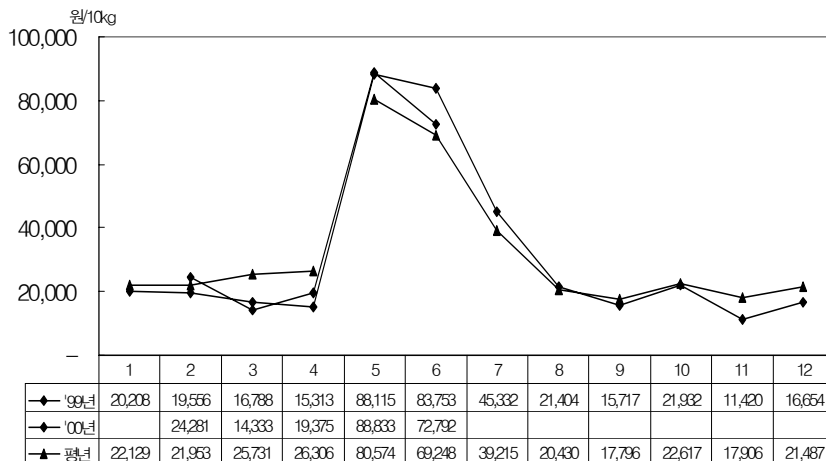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5~99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품종별 재배면적은 신고는 작년보다 4%, 황금배는 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 중심으로 재배면적 편중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화산, 감천배 등 신품종의 재배면적은 늘어나는 반면, 장십랑과 만삼길 재배면적은 각각 14%와 21%씩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수령별 재배면적은 신고는 주로 6년생 이상의 성목 비율이 93%를 차지하고, 황금배, 화산, 감천배 등은 1~3년생 유목면적 비율이 60~67% 수준으로 나타나 앞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장십랑과 만삼길은 주로 21년생 이상의 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3.3. 포 도

- 3/4분기 캠벨얼리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2만 4,753원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었음.
- 포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2만 9,400ha, 성목면적은 2% 정도 줄어든 2만 2,500ha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성목 10a당

포도 도매가격 동향 (10kg 상품 기준)



주: 1.1~4.30, 11.1~12.31일은 세단(세레단), 5.16~10.31은 캠벨얼리 기준임.

평년가격은 1995~99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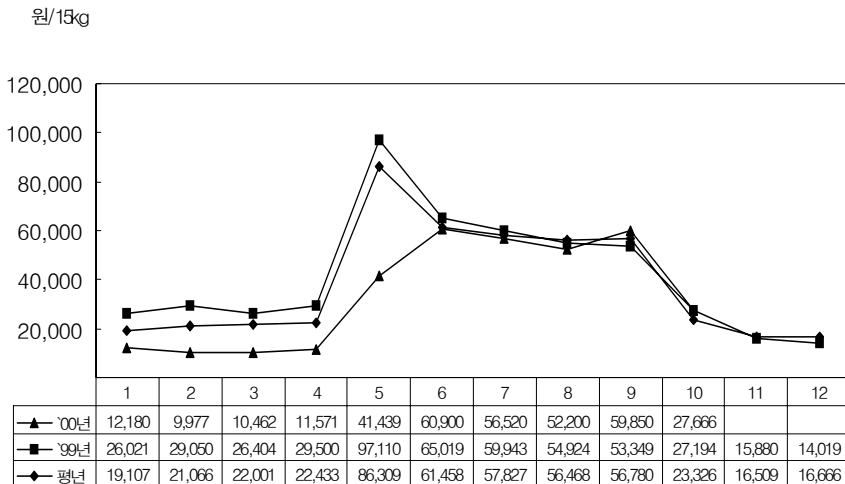
생산량은 작년보다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금년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정도 늘어난 48만 3천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캠벨얼리는 작년보다 3% 정도 줄었으며, 특히 만생종 세단은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거봉은 4%, MBA 등 기타품종은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수령별 재배면적은 품종별로 대부분 3년생 이상 성목 비중이 90% 이상이었으며, 기타 품종은 2년생 미만의 유목면적 비중이 2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신품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3.4. 감 귤

- 3/4분기의 감귤 도매가격은 5kg 상품기준으로 7월 18,840원, 8월 17,400원, 9월 19,950원 이었으며 7월과 8월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고 9월 가격은 높았음. 7월과 8월의 감귤가격 수준이 예년보다 낮았던 것은 제주지역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어 감귤의 착색이 늦어지고 당도도 약간 떨어졌으며 출하량이 작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등 햇과일과 과채류(수박, 참외)의 품질이 좋아 소비가 일부 대체되었기 때문임. 9월가격은 출하량이 줄고 추석 수요증가로 가격이 예년보다 높았음.
- 미 캘리포니아주의 네블 오렌지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15% 정도 줄겠으나 품질은 좋을 것으로 조사됨. 기상여건이 좋아 숙기도 앞당겨질 것이므로 금년산 오렌지수입은 작년보다 이른 11월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노지감귤은 태풍의 영향이 미미했고, 품질은 제주도 전지역에서 예년보다 좋을 것으로 나타나 감귤 생산량은 52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만감류는 부지화를 중심으로 10% 늘 것으로 추정됨.

감귤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주: 5~8월 가격은 하우스밀감, 10~익년 4월은 온주밀감임.

평년가격은 1994년산~1998년산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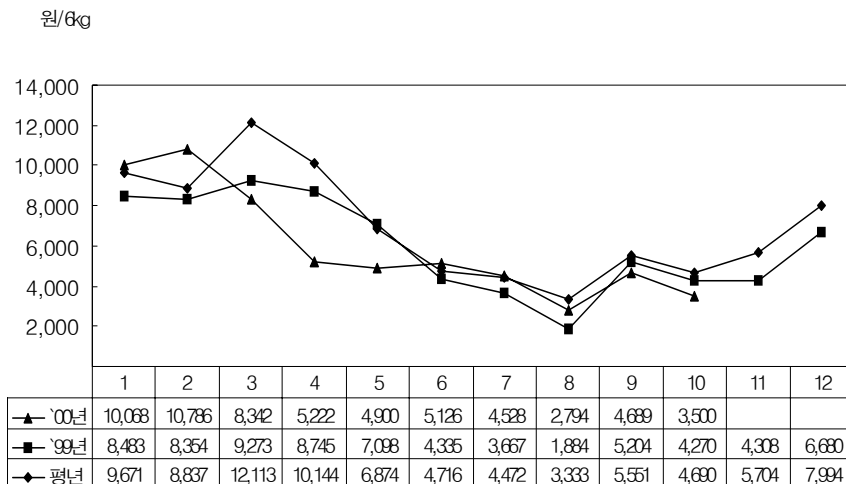
- 금년 겨울 온주밀감의 월동(비가림)재배면적은 시설은 많이 늘었으나 전년산 시세가 좋지않아 작년보다 5%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 한편 가온하우스 재배면적은 유류대가 오르고 금년 5월 조기출하분의 가격이 낮아 조기가온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14%줄 전망. 가온재배가 무가온재배와 만감류 재배 등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3.5. 수 박

- 2000년 수박의 재배의향면적은 시설면적이 작년(21,299ha)보다 1% 늘어난 21,469ha로 추정되며, 노지면적은 작년(13,200ha)보다 8%정도 줄어든 12,197ha로 추정되어 총면적은 작년보다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6kg 상품기준으로 7월 4,528원, 8월 2,794원, 9월 4,689원 이었으며 7월과 8월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고 9월 가격은 낮았음. 7월과 8월의 수박가격 수준이 높았던 것은 수박

출하량이 작년동기보다 20%, 22%씩 각각 줄었기 때문이며, 맛 좋은 타원형계 품종의 출하가 증가하였고, 소득증가와 건강마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9월 수박 가격은 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계속되는 강우로 품질이 떨어졌고, 사과, 포도, 복숭아 등 햇과일로 소비가 옮겨감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여 예년보다 낮았음.

수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95~'99년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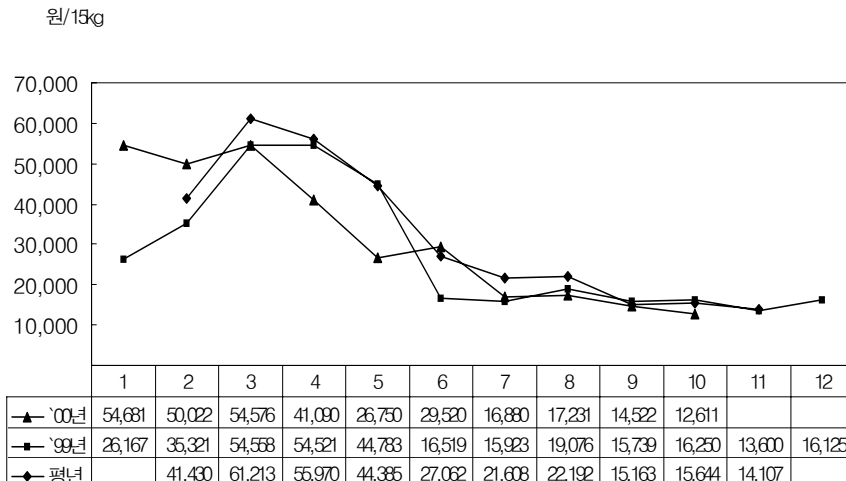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4/4분기 하우스 수박 정식예정면적은 8,9월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해 수박가격이 낮아 정식의향이 감소했고, 유가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동기보다 5~8%정도 줄어들 전망. 수박의 4/4분기 출하량은 작년보다 3~7%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12월은 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수박의 생육상황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좋은 것으로 조사됨.
- 10월이후 가격은, 출하예정면적이 늘고 산지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3.6. 참 외

- 금년 참외 재배면적은 작년(10,859ha)보다 2% 정도 증가한 11,033ha가 될 것으로 조사됨.
- 3/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16,880원, 8월 17,231원, 9월 14,522원으로 7월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고 8월과 9월 가격은 낮음. 7월 참외가격 수준이 높았던 것은, 건장마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여 작년보다 높았음. 8월과 9월의 참외가격이 낮았던 것은 8월중하순부터 비가 계속 내려 품질이 떨어졌고, 사과, 포도, 복숭아 등 햅과일로 소비가 옮겨감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여 예년보다 낮았음.
- 4/4분기 참외 정식예정면적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5~1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올해 참외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참외 정식의

참외 도매가격 동향 (상품, 15kg 기준)



주 : 평년가격은 '95~'99년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향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며, 유가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임. 참외의 4/4분기 출하량은 참외출하면적이 작년동기보다 3~10%증가하고 단수도 작년동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작년보다 5~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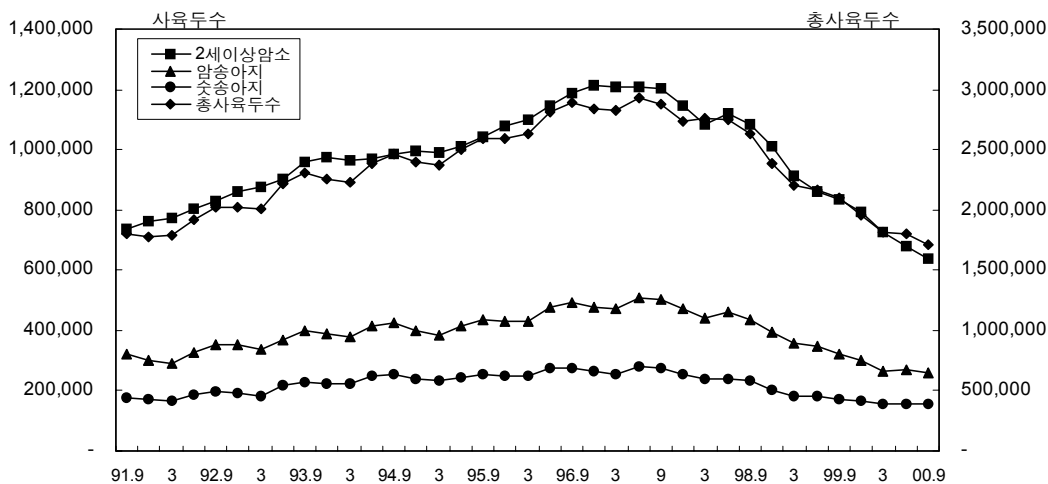
- 10월이후 가격은 출하량이 늘고, 대체과일의 출하로 인해 소비가 옮겨감에 따라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작년동기보다 낮아질 전망.

4. 축 산4)

4.1. 한육우

-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999년 9월 2,094천두에서 12월 1,952천두, 2000년 3월 1,819천두, 2000년 6월 1,801천두, 9월에는 1,713천두로 3개월 전 보다 88천두($\Delta 4.9\%$), 전년동기보다 381천두($\Delta 18.2\%$) 감소함.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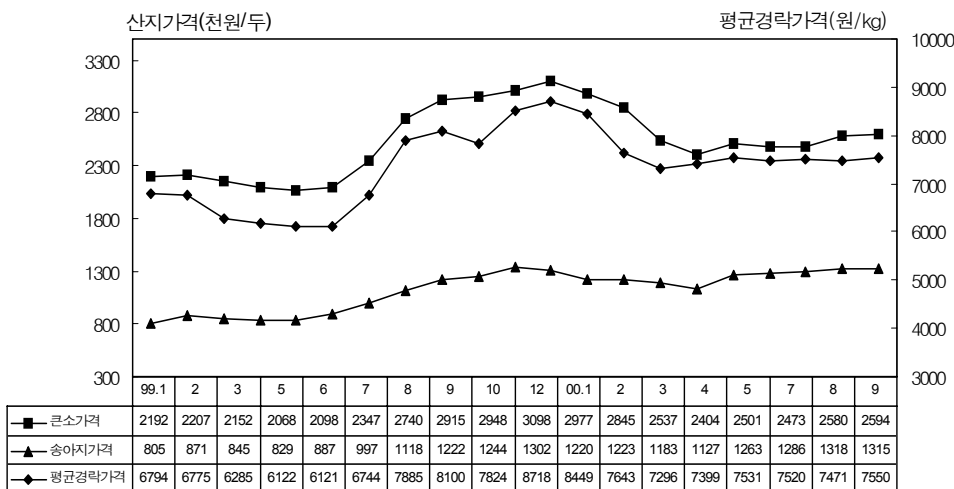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신승렬 부연구위원(syshin@krei.re.kr), 성동현 연구원(dhsu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한육우 사육두수는 내년의 수입완전개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육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암소도축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마리수가 감소하고 있음. 특히 가임암소가 738천두로 3개월전보다 47천두($\Delta 6.0\%$), 작년동기보다 191천두($\Delta 20.6\%$) 감소함.
- 큰수소값(천원/500kg) : ('00.3) 2,537→('00.6) 2,501→('00.9) 2,594 ('99.9 대비 $\Delta 11.0\%$, '00.6월 대비 4.8%)
- 50두미만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대부분 감소
 - 50두 미만 : ('99.9) 1,621 → ('00.3) 1,408 → ('00.9) 1,304
 - 100두 이상 : ('99.9) 219 → ('00.3) 192 → ('00.9) 201
- 암소도축의 증가로 가임암소 부족현상 발생
 - 암소도축비율 : ('98) 49.8% → ('99) 57.6% → ('00. 8) 53.4%
 - 가임암소두수 : ('99.9) 929천두→('00.6) 785천두→('00.9) 738천두 (전분기 대비 6.0%, 전년동기 20.6% 감소)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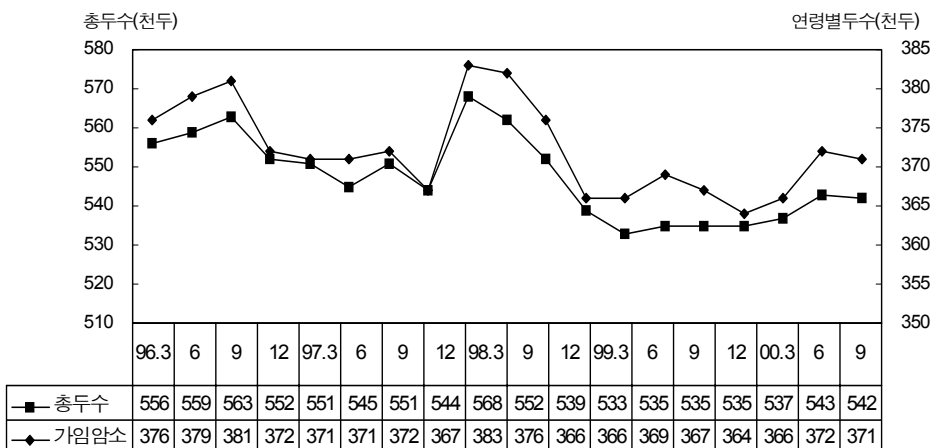
-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도축두수의 감소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여 쇠고기 총 소비량은 증가.
 - 2000년 1~8월까지의 도축두수는 661천두로 작년 동기간대비 9.3% 감소하였음.
 - 2000년 1~8월까지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158,469톤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8.7% 증가함.
 - 2000년 1~8월까지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143.3천톤으로 작년동기 대비 11.3% 감소하였고, 수입 쇠고기 소비는 1~8월까지 109.8천톤으로 작년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음. 이는 한육우의 사육두수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수소 산지가격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1998년 8월에 1,612천원으로 '90년대 이후 최저치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점차 상승하여 1999년 12월에는 3,098천원으로 300만원대를 넘는 등 199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였음.
 - 산지 가격은 2000년 1월 2,977천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하락하여 7월 2,473천원까지 하락하다 추석 성수기로 조금 상승하여 9월 현재 2,594천원에 거래됨.
 - 2000년 3월부터 암소가격이 수소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고 또한, 최근 상승률도 암소가격이 높게 나타남. 이는 암소도축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9월 현재 암소가격은 2907천원으로 수소가격 2594천원보다 12.1% 높게 형성되고 있음.

4.2. 젓 소

- 젓소 총 사육두수는 1999년 9월 535천두에서 12월 535천두를 유지하였고, 2000년 3월 537천두, 6월 543천두, 9월 542천두로 3개월전보다 1천두($\Delta 0.2\%$)감소, 전년동기보다는 7천두(1.3%) 증가함.

- 젓소 가임암소 두수는 1998년 3월 383천두에서 감소하다 2000년 3월 366천두, 6월에는 372천두, 9월 현재 371천두로 전분기보다 1천두(Δ 0.3%) 감소, 작년 동기보다는 4천두(1.1%)증가하였음.
- 전체사육농가의 72.8%를 차지하는 50두미만 사육농가의 마리수는 감소하고 50두이상 농가에서의 사육마리수는 약간 증가.
 - 50두미만 : '99.9 303천두 $\rightarrow$ '00.6 280 $\rightarrow$ '00.9 273 (전분기대비 Δ 2.5% 감소)
 - 50두이상 : '99.9 232천두 $\rightarrow$ '00.6 263 $\rightarrow$ '00.9 269 (전분기대비 2.3% 증가)
- 사육두수가 전분기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사료가격의 하락등 낙농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유지.
 - 2세이상 : ('00.3) 307천두 $\rightarrow$ ('00.6) 313 $\rightarrow$ ('00.9) 312 (전분기대비 Δ 0.3% 감소)
 - 낙농용사료값 : ('99.12) 6,240원/25kg $\rightarrow$ ('00.8) 6,080(작년말대비 Δ 2.6% 하락)

젓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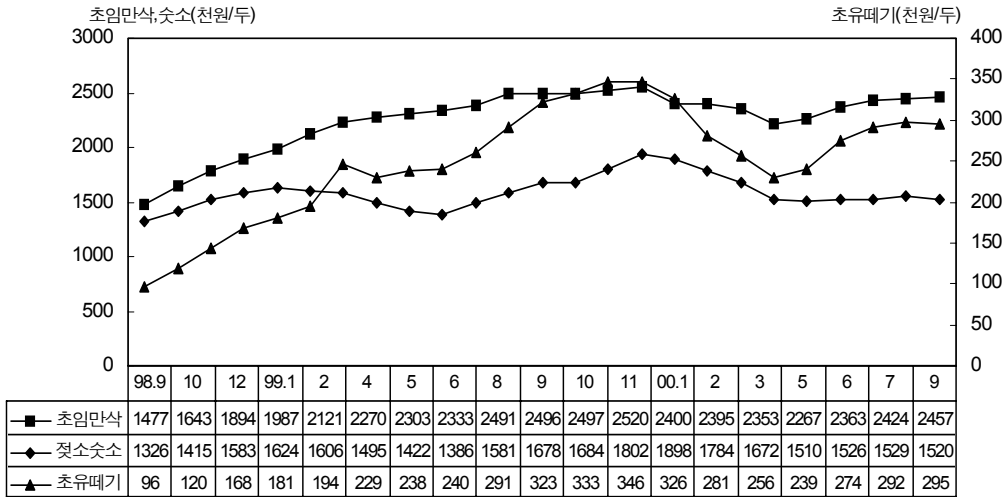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1998년 7월 64천원 최저수준 → 이후 상승, 1999년 12월 347천원 → 이후 하락하다 2000년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9월 현재 295천원에서 거래.

젓소 산지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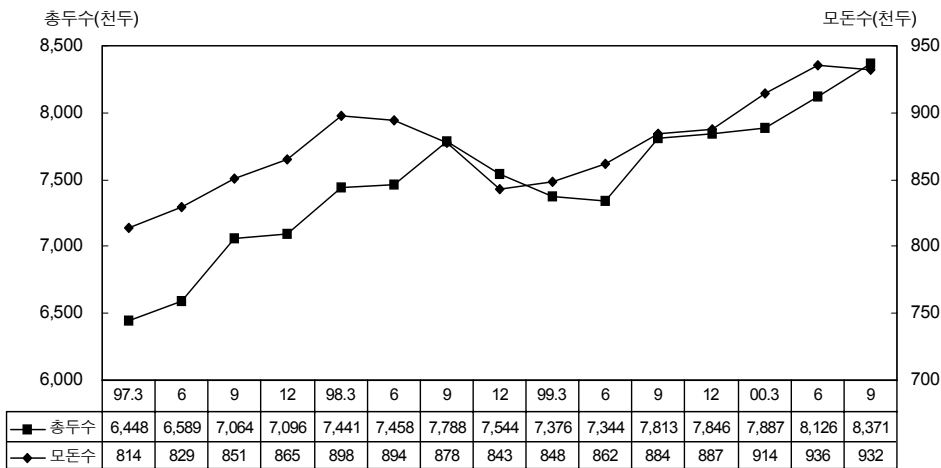
- 초임만삭우: 1998년 7월 1,319천원 최저수준 → 이후 상승, 1999년 12월 2,552천원 → 이후 하락하다 2000년 9월 현재 2,457천원으로 회복세.
- 젓소숫소: 1998년 7월 1,092천원 최저수준 → 이후 상승, 1999년 12월 1,932천원 → 이후 하락세, 2000년 9월 현재 1,520천원 기록.

4.3. 돼 지

- 돼지 총사육두수는 1999년 6월 7,344천두에서 9월 7,813천두, 12월 7,864천두, 2000년 3월 7,887천두, 6월 8,126천두, 9월 8,371천두로 3개월 전보다 245천두(3.0%), 전년동기보다 558천두(7.1%) 증가함.

- 지속적인 모돈수 증가에 따라 자돈생산이 증가하여 전체 사육마리수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9월 모돈수는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최근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임. 9월 모돈수는 932천두로 전분기보다 4천두($\Delta 0.4\%$) 감소, 그러나 작년동기보다는 48천두(5.4%) 증가하였음.

돼지 사육마리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산지가격 : '99. 9 210 천원/100kg → '00. 6 207 천원/100kg → '00. 9 141 천원/100kg
- 모돈수 : '99. 9 884천두 → '00. 6 936천두 → '00. 9 932천두 (전분기 대비 $\Delta 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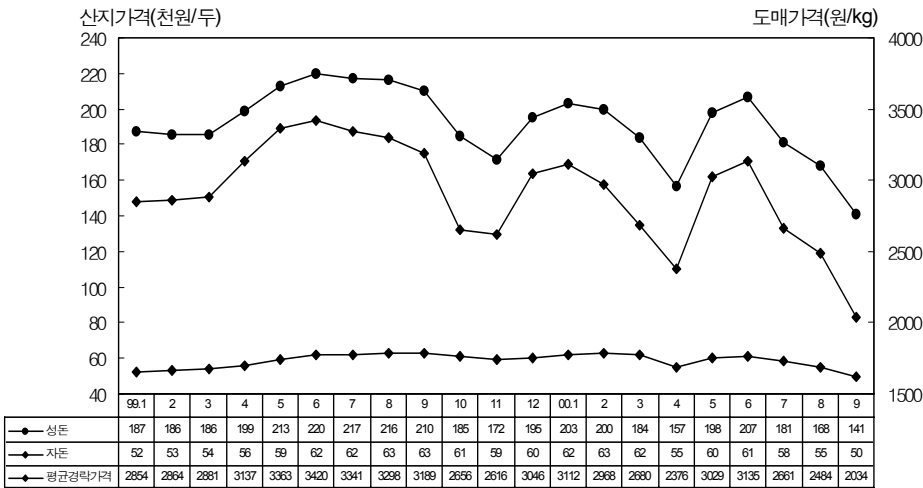
○ 돼지 산지가격변동

- 성돈(100kg) : '97년 171천원→'98년 179천원→'99년 199천원으로 증가 추세. 금년 들어 강세로 출발하였던 산지가격이 구제역의 영향으로 일시적 하락 현상을 보였으나, '00. 6월 207천원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여름철 성수기를 지나

면서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수출중단으로 인한 재고량 체적 등의 이유로 9월 현재 141천원으로 하락.

- 자돈 : '97년 53.2천원→'98년 50.4천원→'99년 58.7천원으로 증가 추세. 금년 들어서도 1월과 2월에 60천원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성돈 산지가격의 하락이후 2000년 9월 현재 50천원 기록.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4.4. 닭

- 닭 총 사육두수는 1999년 9월 100,567천수에서 12월 94,587천수, 2000년 6월 118,773천수, 9월 95,799천수로 3개월전보다 22,974천수(△19.3%), 전년동기 보다 4,768천수(△4.7%)가 감소함.
- 산란계의 경우 장기간의 계란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의 사육의욕 저하로 신규입식을 자제하고 6개월령이상 마리수의 감축으로 전체사육마리수가 감소하였고, 육계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철 성수기가

지나면서 사육규모 감축으로 사육마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산란계는 1999년 9월 51,162천수에서 12월 51,934천수, 2000년 3월 51,111천수, 6월 51,199천수, 9월 48,777천수로 3개월 전보다 2,422천수($\Delta 4.7\%$)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보다는 2,385천수($\Delta 4.7\%$) 감소함.
- 육계는 1999년 9월 42,449천수에서 12월 36,558천수, 2000년 3월 42,352천수, 6월 59,910천수, 9월 40,310천수로 3개월 전보다 19,600천수($\Delta 32.7\%$), 전년동기보다 2,139천수($\Delta 5.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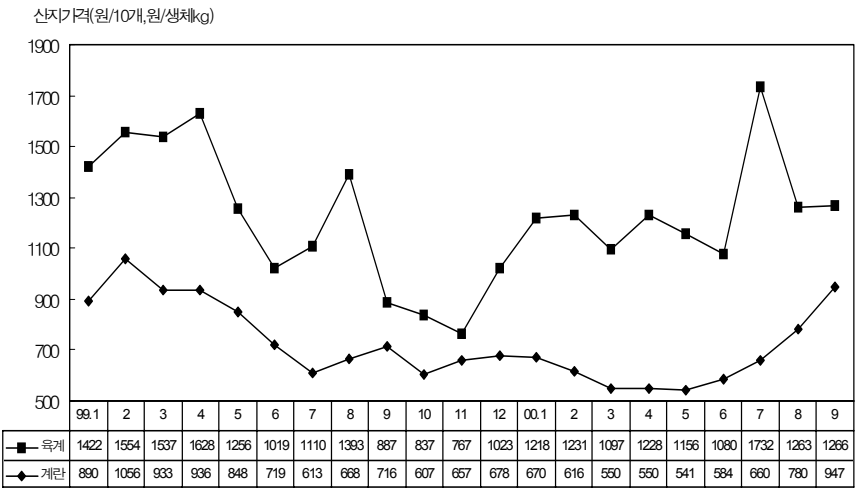
○ 계란의 산지가격 변동

- 계란 특란의 산지가격은 1998년 9월 추석 성수기에 1,004원으로 상승한 이후 1999년 1월까지 890원대를 유지함. 그러나,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12월에는 678원까지 하락하였음. 2000년에 들어서는 연초 600원대로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였으나 1999년 12월 산란실용계 입추 중단에 따라 6월부터 가격이 꾸준히 회복되어 추석에 900원대까지 회복되었음. 예년에 추석을 전후로 값이 하락세로 바뀌는 것과는 달리 올해는 산란노계의 도태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추석이후 10월 현재까지 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육계의 산지가격 변동

- 연초에 약세를 보이던 산지육계가격은 4월에 들어서 구제역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체수요 증가로 1,228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약간 상승하였음. 4월 이후 가격은 계속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전국적인 질병의 여파로 생산량은 감소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7월 산지가격은 1,732원으로 상승하였음. 추석이후 소비가 감소되면서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여 9월에 1,000원대까지 하락하였다가 10월 현재 보합세를 보이며 1,094원에 거래되고 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주 : 계란 산지가격은 2000년 이전은 대란기준이며, 그 이후는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산란 종계 병아리 생산은 1998년 555천수에서 1999년에는 581천수로 작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2000년 1~8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은 338천수로 작년동기 대비 27.8% 감소하였음.
- 육용 종계 병아리 생산은 1998년 3,244천수에서 1997년에는 3,525천수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음. 2000년 1~8월까지의 병아리 생산은 2,526천수로 작년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음.

VI. 특별주제

- 농가소득의 동향과 문제
-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농가소득의 동향과 문제1)

1. 농가 소득의 추세

- 1999년의 가구당 평균 농가소득은 연 22,32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9% 증가하였음.
- 농업소득은 1998년에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위축된 농산물소비가 회복되면서 축산, 과수, 특작의 소득이 늘어나고 쌀 생산량이 증가함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0% 증가하였음.
- 반면 농외소득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0.8% 증가에 그침. 농외소득 중에서 급료는 전년 대비 35.5% 증가한 반면 기타노임은 38.2% 감소하여 농촌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 등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그 결과 농외소득 비율은 31.5%로 낮아짐.
-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1997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더구나 실질소득으로 보면 1993년 수준(18,624천원, '95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가소득의 정체 문제가 심각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대비한 상대비는 83.6%로 전년도 80.1%보다 약간 개선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투자 증가는 농가소득의 정체와 맞물려 부채의 누증을 가져왔음.
- 1999년의 농가 호당 평균 부채는 18,535천원으로 1997년에 비해 42% 증가하였음.

주) 이 자료는 농촌발전연구부의 오내원 부연구위원(naewonoh@krei.re.kr)이 집필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농가 소득의 추세와 구성

단위 : 천원, %

	1996	1997	1998	1999	1999/97
농가소득(경상)	23,298	23,488	20,494	22,323	0.95
농업소득	10,837	10,204	8,955	10,566	1.04
농외소득	7,487	8,677	6,975	7,034	0.81
이전수입	4,974	4,607	4,563	4,723	1.03
농외소득비율(%)	32.1	36.9	34.0	31.5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	90.2	85.6	80.1	83.6	-
농가 부채	11,734	13,012	17,011	18,535	1.42
농가소득(1995 실질)	22,338	22,013	17,368	18,418	0.84

2. 농가소득 정체의 구조적 문제

- 이러한 농가소득의 정체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서는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
 -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의 상대적 가격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농업소득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농가 연령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비농업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 농외소득의 증가도 어려움.
- UR 협상이 타결된 1994년 이후 실질농업소득은 감소로 반전하였음.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투입재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정자본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1994~99년간 농산물가격(농가판매가격 기준)은 18.3% 상승하였지만 GDP 디플레이터에 대비한 상대가격은 오히려 0.4% 하락하였음.
 - 반면, 농업투입재가격(임료금 제외)은 30.6% 상승하였음(실질가격 기준 9.9% 상승).

- 한편, 농가의 소비재 구입가격까지 감안한 총 교역조건은 같은 기간 중 7.8% 악화되어 농가의 체감소득 감소를 증폭시키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4년까지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0.8% 정도 상승하나, 2004~10년에는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가격의 정체 내지 하락현상은 구조적인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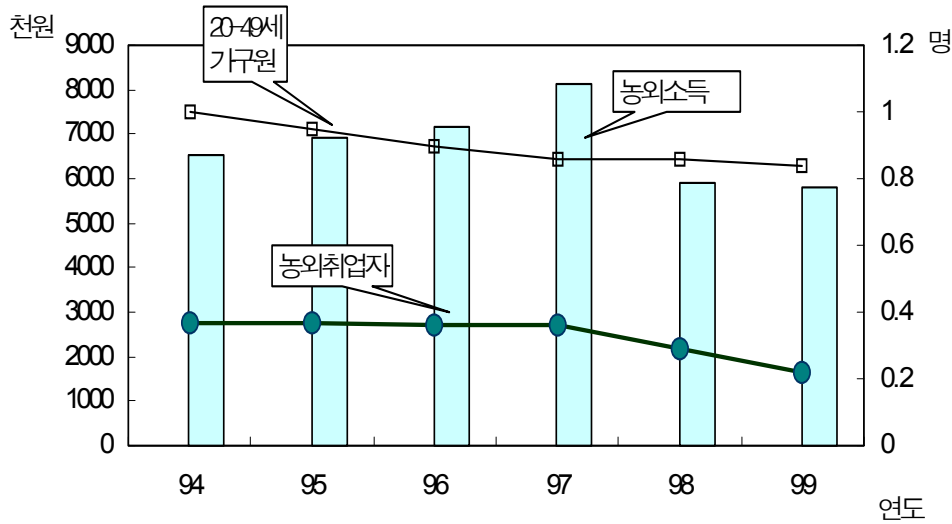
농산물 가격과 투입재 가격 지수 추이

(1995=100)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994~99 연평균변화율 (%)
가격 지수	농산물	91.7	100.0	105.2	102.2	101.9	108.5	3.4
	중간투입재	93.9	100.0	101.4	100.0	118.7	122.6	5.5
실질 지수	농산물	98.3	100.0	101.3	95.3	90.5	97.9	△ 0.1
	중간투입재	100.6	100.0	97.6	93.3	105.4	110.6	1.9
GDP 디플레이터		93.3	100.0	103.9	107.2	112.6	110.8	3.5
총 농가교역조건		97.1	100.0	100.9	95.8	86.4	89.5	△ 1.6

- 한편,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취업가능인력이 고갈되어 농외소득의 증가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
- 농외취업자는 1995년의 호당 0.3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0.22명으로 40.5% 감소함.
- 물론 이러한 농외취업자의 감소는 최근의 경기불황과 관련이 있지만, 농촌지역의 노령화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농외취업자의 지속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활발한 농외취업이 가능한 25~49세 사이의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중 호당 0.95명에서 0.84명으로 감소함.

농외소득과 농외취업자의 추이



주 : 농외소득은 '95 기준 실질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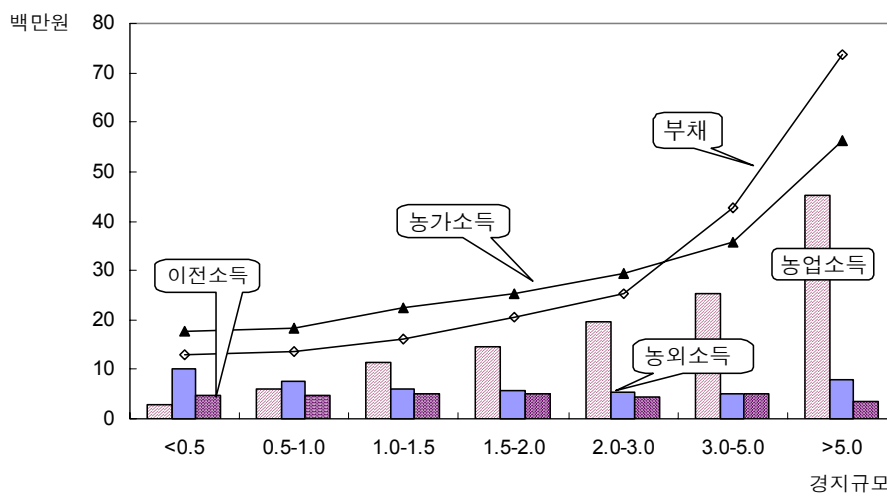
3. 농가 그룹별 소득 비교

3.1. 경지규모 계층별

- 최근 농가소득 추세의 한가지 특징은 계층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즉, 영세농과 대농층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영세농층의 소득감소가 심함.
- 0.5ha 미만층의 농가소득은 1995년에 20,359천원에서 1998년에는 16,032천원, 1999년에는 17,770천원으로 명목상으로도 감소함.
- 그 결과 1999년의 0.5ha 미만층의 농가소득은 5ha 이상층(56,382천원)의 31.4%에 불과하여 1998년의 36.2%보다 격차가 확대되었음.(1997년에는 51.5%)

- 이러한 격차 확대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양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영세농층에 노령가구가 적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경지규모 2ha 이상층은 IMF의 충격에서 소득이 회복되고 있으나 부채 부담은 평균 이상으로 이들의 농업투자 확대가 농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
 - 3ha 이상 농가의 부채/소득 비율 : 1.25
 - 0.5ha 미만 농가의 부채/소득 비율 : 0.74

경지규모 계층별 농가소득과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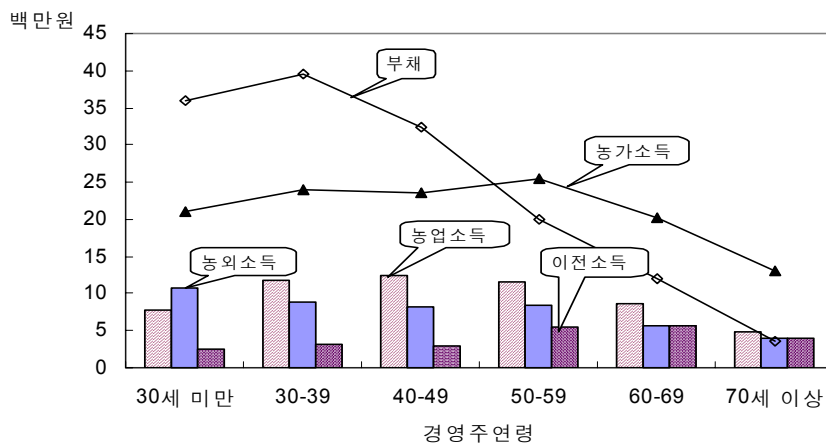


3.2. 경영주 연령별

-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전체 농가소득은 50대가 가장 높으나 그 이하 연령층과 큰 차이는 없음. 그러나, 60대 이상이 되면 농가소득이 낮아져 70대는 5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농업소득은 40대가 가장 많음.
 - 농외소득은 연령층이 젊을수록 많으나 60대 이상에서도 상당액에 달함. 이중 상당액은 동거자녀의 취업소득일 것으로 추정됨.

- 이전소득은 자녀가 취업세대인 50대 이상에서 많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농가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31.5%).
- 연령층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40대 이하 젊은 농가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으로 매우 높음.
- 구조정책 과정에서 농업투자가 많았지만 수익률 저하로 투자 회수가 안된 농가가 다수 포함됨.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3.3. 전·겸업별

- 1999년 들어 겸업농은 IMF 위기의 영향을 벗어나 1997년 소득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전업농의 소득은 10.5% 감소하여 전겸업농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1999년 전업농의 평균 농가소득은 18,842천원으로 겸업농의 70%에 불과함.
- 전업농의 부채는 소득보다 많음(103.2%).

- 전업농의 농가소득 감소는 주로 농업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약간 증가하였음.
- 1종겸업농의 농업경영규모, 농업생산성 등 농업관련지표는 전업농보다 오히려 우월하나 2종겸업농은 매우 취약함.
 - 이는 1종겸업농이 농업경영면에서는 통계상의 전업농보다도 강한 농업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통계상의 전업농에는 은퇴시기가 가까운 노령농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결과이기도 함.
 - 따라서, 기존 통계의 전겸업 구분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겸업농을 막론하고 노령(영세)농가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 전업농과 1종겸업농을 묶어 농업중심 농가로 파악.
 - 2종겸업농은 자가소비의 비중이 큰 미작에 특화되어 있으며(미작수입 3,967천원으로 농업조수입의 48.1%, 전업농은 32.8%), 토지생산성은 1종겸업농의 74.6% 수준으로 낮음.

전겸업별 농가소득 비교

단위 : 천원

	1995				1999			
	전업농 (A)	1종겸업 (B)	2종겸업	A/B	전업농 (C)	1종겸업 (D)	2종겸업	C/D
농가소득	20,292	25,385	23,251	0.80	18,842	26,766	26,876	0.70
농업소득	14,136	15,957	4,194	0.89	11,781	15,851	4,770	0.74
농외소득	1,658	5,363	15,048	0.31	2,217	6,737	16,894	0.33

전겸업농의 농업 특성, 1999

	전업농	1종 겸업농	2종 겸업농
농업소득 (천원)	11,781	15,851	4,770
경지면적 (평)	4,519	5,565	2,246
농업종사자 (명)	2.19	2.29	2.06
ha당 농업소득 (천원)	7,821	8,545	6,371

3.4. 소득계층별

- 1990년대 후반 들어 소득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상위소득계층인 4, 5분위 층은 1995-99년간 소득이 약간 증가하거나 유지되었지만 1, 2, 3분위의 중간 이하층은 소득이 감소함.
- 1분위층은 소득이 28% 감소한 반면 부채는 크게 증가하여 1999년 현재 부채가 소득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 농가 층에는 과중한 농업투자 후 실농한 농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1분위층은 농가소득으로 가계비의 52.7%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2분위층도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밀돌고 있음.

소득계층별 주요 지표, 1999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농가소득 (천원)	5,773	12,853	18,687	26,351	45,987
부 채 (천원)	18,323	14,540	15,268	20,085	29,818
부채/소득 (%)	317.4	113.1	81.7	76.2	64.8
소득/가계비 (%)	52.7	97.3	115.4	131.0	176.9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¹⁾

1. 농업 여건 변화와 농작물재해보험

1.1. 자연재해와 농작물재해보험

- 과학의 발달과 농가의 영농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웬만한 자연재해는 극복 가능해졌음. 그러나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같은 대재해에 대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자연재해는 농업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농가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농가의 재생산 활동마저 어렵게 함.
 -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은 복합농가보다는 전업농가에게 커다란 영향을 초래함.
- 우리 나라의 경우 농업기상재해는 60년대 이후 약 7년 주기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엘리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연속해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발생하였음.
 - 1965~66가뭄, 1972수해, 1980냉해, 1987수해, 1993냉해, 1998집중호우
- 우리 나라는 1993년에 냉해등으로 인해 1조원(추정액)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
-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재해대책이 마련될

1) 이 자료는 농촌발전연구부 최경환 부연구위원(kyeo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필요가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중의 하나임.

- 농작물재해보험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마다 농가가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내고,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임.
 -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보험과 다를 바가 없음.
 - 다만, 일반보험원리에 따르면 농가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2.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작물재해보험

- WTO 체제하에서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함. 반면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재해지원정책은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분류되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농작물보험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강화하고 있는 경향임.
 - 세계 각국의 농정방향도 농산물가격지지정책에서 농업구조개선정책으로, 다시 최근에는 농가소득안정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
 - 현재 실시중인 작물보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함.
 -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생산량 변동은 물론 가격변동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보험을 개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정도의 준비작업이 필요함.

- 보험은 통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련 통계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 아울러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일정한 검토기간이 필요함.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농작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험구매력이 존재해야 함.

2. 농작물재해보험의 검토 경과

2.1. 1970~80년대

- 우리 나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쌀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을 검토하였음.
 - 당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농정의 지상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주소득원이었기 때문임. 이러한 중요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도 마찬가지임.
- 1980년대초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준비작업이 이루어졌음.
 - 8개도 24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상연습도 실시하였으나 시범사업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음.
- 1980년대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음.
 - 쌀은 대다수 농가가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농가의 영농기술수준의 향상과 냉해 피해가 심했던 1980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전반적으로 풍작을 이루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음.

- 또한 당시 농업인들중의 상당수가 보험을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전반적으로 농가경제가 취약하여 농가부담 보험료 자체가 대다수 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인식되었음.

2.2. 1990년대 이후

- 1980년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쌀 이외의 작물 중에서 상업화, 전업화가 진전된 작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고 차츰 타 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전업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작물로는 과수, 특작, 축산 부문의 일부 품목들이 제시되었음.
- 쌀 이외의 작물들중에서는 과수부문의 사과, 배, 감귤과 특작부문의 인삼과 엽연초 정도가 비교적 작물보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에서는 사과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 농업인단체들과 각 정당 등에서도 성명서나 선거공약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함.
- 반면에, 축산부문에서는 한우에 대한 공제(보험) 도입 가능성의 검토가 이루어져 1997년부터 3년 동안 한우, 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00.1월부터는 돼지와 말이 추가되어 5축종에 대한 가축공제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3.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

- WTO협정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농산물가격의 변동이

심화되자, 농가의 소득 불안정 문제가 농정의 중점과제로 대두되었음.

- 직접지불제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안전망(Farm Safety Net)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되었음.
- 정부는 금년초에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들을 취해 왔음.
 -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여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 사과와 배 주산지에서 지방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였음.
 - 관련 예산과 법안(입법예고중)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임.
- 8월하순부터 농림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전담실무작업팀이 설치되어 시범사업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
 - 전담실무작업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농림부 농정과, 과수화훼과, 농산과, 원예연구소(농촌진흥청),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및 민간보험사의 실무자로 구성됨.
 - 11월말까지 1차 준비를 완료하고 12월중에는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보완한 후, 2001.1월까지 준비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2월에는 홍보 및 교육을 거쳐 3월부터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4.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의의

4.1.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개요²⁾

- 내년에는 우선 사과와 배 두 작물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차츰 타 작물로 확대함.

2)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입법고중인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여기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함.

- 쌀 이외의 작물 중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밀집도 등을 토대로 농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업화가 진전된 작물을 우선 선정하였음.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각 도별로 사과와 배 주산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함.
-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법안 통과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될 것임.
- 시범사업지역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농작물재해보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보험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임.

4.2.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의의

- 내년부터 실시될 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써 농정사적 관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
- 기존의 가격정책은 축소 또는 폐지되고, 구조정책도 한계를 나타내는 현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타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음.

4.3.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의 전제조건

-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관련 자료나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행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사과와 배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수의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는데 필수적임.
-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5.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방향

- 전국적인 본사업에 대비하고 사업 추진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기간을 일정 기간 확보해야 함
- 전국적인 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시범사업기간은 최소한 3년은 되어야 함.
- 사과와 배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체계를 확립하면서
- 작물별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 도입 가능성이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는 도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준비해야 함.

- 앞으로 상당기간은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실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가소득안정 프로그램과의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 록

- 2000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2000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¹⁾

1. 개 황

- 8월 하순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농경지 2만여ha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8월 말과 9월 초순에는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영향으로 농작물 침수는 물론 강한 바람으로 인한 벼의 쓰러짐, 과수원의 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잇따랐으나, 이후 기상호조로 작황은 예년 수준 웃돌 것으로 전망. 한편, 이와관련해 농업인들은 농업재해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 상반기에 이어 ‘逆귀농’ 현상이 심화돼 각지역에서는 농업인구가 줄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귀농을 위한 자금 신청자가 소수에 불과해 농업관련단체에서 실시하던 귀농교육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보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농업인들은 정착지원 자금 상향조정과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확대 등 젊은 농업인의 귀농을 촉진시킬 유인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
- 전북지역 언론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정부가 조속히 개발이든 보존이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국농업관련학과 교수, 전북지역 시민단체, 전북도의회 등은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 또 전북지역 일부 시·군 주민들도 사업의 재개를 촉구

1) 이 자료는 농정분석실 김동원 책임연구원이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선정, 요점을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이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dongweon@krei.re.kr로 연락바람.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깊은 관심 표명.

- 전농 전남지부 등 각지역 농민단체들은 LG와 해태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이 가격폭락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 회사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했고,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불매운동에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까지 가세하는 등 점차 확산 기미. 한편,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포도 등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 9월 들어 유류값이 크게 오르자 시설재배 농가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다며 재배면적 축소와 보온 단열재 설치, 연탄보일러로 교체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전남지역을 비롯한 마늘 주산지에서는 중국산 마늘 수입협상 여파로 가격이 폭락하자 마늘재배농가들이 양파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파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는 조사결과 발표.
- 축산분야는, 내년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한우 사육심리가 크게 위축돼 지난 1년새 사육두수는 전남지역이 25%, 경남 17.1%, 충남 15.5%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지역에서는 7월 한달간 전체 한우 도축중 암소가 75%를 차지해 암소 도축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우려. 한편 돼지는 경기지역에서 1년새 15만두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부분 사육두수가 증가해 축종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고, 돼지값은 계속 하락해 9월 하순에는 1백kg 기준 14만원선에 거래되면서 축산농가들이 두당 5~6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도.
- 이밖에 농어촌사회복지 분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처방약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농촌지역 약국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폐농기계 방치와 농기계폐유 방류에 따른 하천 오염 심각성에 대한 보도도 잇따랐음. 또 현재 실업계고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인문계고교 학생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 팽배.

- 이와함께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촌지역 상수관설치사업이 마을앞까지만 상수관을 설치하고 50~2백만원씩이나 소요되는 급수선은 자부담으로 설치토록해 농촌주민들이 이를 외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지역학교 급식과 관련해 일부지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수에 비해 영양사는 절반정도에 그쳐 집단 식중독 등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2. 지역별 농업 관련 보도 내용

2.1. 경기도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반 동안 경기도내 농협조합원들이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강제·임의 경매당한 건수가 1천5백25건, 금액으로는 8백6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일반 은행 부채를 포함할 경우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됐고, 또 경기지역 지자체의 농어촌구조개선 자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육성대상자 및 입지선정 오류와 시설 자금 과다지원 등으로 예산 2백7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 귀농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기지역은 98년 2백69가구, 99년 2백24가구에서 줄어들어서는 귀농을 위한 자금 신청자가 12명에 불과해 농업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던 귀농교육도 중단된 상태.
- 경기지역 3백9개 농협하나로마트 가운데 전체 60%인 1백86곳이 적자

를 기록했고, 일부 축협매장은 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손순익은 6천만원 적자로 나타나는가 하면, 임산물유통센터도 3년째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어 적자점포 정리와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벤처농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키로 하고 지역특색상품 사업화 희망업체중 농업경영정보 프로그램 개발업체 ‘이지팜’ 등 7개업체를 선정해 2억원씩 지원키로했고, 경기지역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올들어 7월말까지 수입액 1억8천1백만달러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93%나 증가했다고 보도.
- 이지역 농업인들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5.5%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각종 자재비와 물가 상승률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최근 태풍 등으로 벼 피해면적이 3천5백여ha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 농림부가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의 취급물량 폭주와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서울 인근 경기지역에 현재의 3배 규모인 50만평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용인지역의 농지불법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지역이 경기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37%인 1백85건 41.2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 보전대책 시급.
- 경기도가 내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 한우 개량단지 육성, 우량암소 혈통등록과 인공 수정, 수정란 이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천시도 자동화 축사시설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고품질 한우생산기지 건설에 박차.
- 경기지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1년새 15만두나 증가하는 등 과잉생산으로 최근 돼지값이 폭락세를 거듭, 9월 하순 1백kg기준 14만원선에 거래되면서 축산농가들이 두달째 마리당 5~6만원씩 적자.

- 환경부 조사에서 용인지역의 축산물 분뇨처리 가동률이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지역 수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BOD가 평균 4천PPM으로 기준치의 2.7배나 높게 나타나 수질 오염원으로 지목.
- 평택시는 낙후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개면 9개지구 1백41만여 m²를 주거지와 근린생활지 등으로 세분화하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

2.2. 강원도

- 강원 인제지역에서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반응이 좋아 농협을 통해 지원된 금액이 225가구 82억여원으로 1가구당 이자부담액 경감액이 9백만원에 달해 부채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 강원 철원지역에서는 친환경 벼 농사가 활발, 오리·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업에 2천3백61가구의 농가가 참여, 지난해 보다 1.5배 증가했으며 가격도 일반쌀 보다 20~30% 이상 비싸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강원지역에서 고랭지배추 생산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생산을 포기하면서 8월 하순 정선농협이 5톤트럭 50대분, 대관령 원예농협이 1백50대분, 삼척농협이 1백대분을 각각 채소수급안정사업 적립금을 들여 폐기. 이와관련, 태백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답 9백30ha가 30년 연작으로 병충해 발생이 잦고, 3백평당 생산량도 10년전보다 1톤 가량 줄었는가 하면 한때 가격도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가격 변동도 심해 작목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

- 강원도가 가락동 시장에 출하되는 강원산 채소의 거래물량을 조사한 결과, 배추는 총 3천4백20여 톤에 달해 전체 가락시장 거래물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호박과 감자도 점유율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9월들어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제지역에서는 백합과 고추냉이 등을 재배하는 시설재배 농가가 생산비도 못건지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농가는 연탄보일러 교체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
- 지난 4월 극심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삼척에서는 송이 생산량이 감소해 수매실적 1천2백kg에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의 17% 수준에 그쳤고, 원주지역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담배인삼공사측이 올해 초과생산된 잎담배를 전량 수매하는 대신 내년도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하자 이에 반발해 수매를 전면 거부하는 한편 담배인삼공사측의 독점권 폐지 등을 요구.
- 강원지역에서도 내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우사육을 기피하면서 최근 6개월새 한우 1만여마리가 감소해 송아지 생산도 줄어들고 있어 한우 사육기반 붕괴를 우려.
- 농촌지역 상수도관 설치사업이 농촌지역 마을앞까지만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급수선은 주민들이 50~2백만원까지 부담해 설치하게해 원주 일부지역에서는 3백70세대중 60세대만 급수선을 설치하는데 그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2.3. 충청북도

- 충북농협지역본부는 통합농협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축·인삼협간 자매결연과 직거래장터 공동개설, 면세유 및

배합사료의 상호구매 등 한가족운동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 농산물 공동계산제가 농가의 인식부족과 작업곤란 등의 이유로 개별 출하를 선호하면서 전체 4백30개 선진작목반 중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 보은지역에서는 농기계구입 보조금제도가 없어지면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인 기계화 영농단이 올해부터 조성 중단 상태이고 위탁영농회사와 쌀전업농도 농기계 구입에 큰 부담을 느껴 농기계 공유개념이 붕괴되고 구입형태가 개인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도.
- 옥천군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1백60억원을 투입해 2만여평 규모의 농산물 집산단지를 조성, 중부지역 농산물물류 거점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보은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명품화하기 위해 채소 등 4개 분야에 27억원을 들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과수분야 80여농가가 중도 포기하는 등 차질.
- 정부가 산림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에 산림과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진천지역에서는 농경지가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돼 올 상반기에만 1백80건 37만8천여㎡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
- 진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국화가 일본에서 품질을 인정 받아 20만송이 6천여만원어치를 첫 수출했고, 단양지역 마늘농가는 중국산마늘 수입협상 여파로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까지 부진해 중간상에 헐값 처분하면서 자금난에 허덕.

- 충주지역에서 종돈을 수매한 축산기업에 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종돈혈통증명서를 발급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에서 현장 방문도 없이 서류로만 확인해 거세돈이 섞인 출하가 빈번하고 종돈 표시도 제각각이라고 지적.
- 돈육에 대한 소비위축과 사육 증가로 돼지값이 8월 하순 성돈 1백kg 기준 16만3천원대까지 떨어져 작년 같은기간비해 30%나 떨어진 가운데 충북도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규 종부 입식억제를 추진.
- 청원지역 양축농가들은 ‘가축운동장 비가림시설’이 관련법에 축사로 분류돼 있어 비가림시설을 할 경우 퇴비사도 확대해야 하는 등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사시설이 아닌 환경오염방지시설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
- 옥천지역에서는 폐사가축처리에 대한 농가의 인식부족과 가축전염병 방지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전염병 유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발생한 충북지역 폐교 1백89곳중 1백45곳이 청소년 심신수련장과 공장 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등 폐교 활용이 활발. 청원지역 농업인들은 현재 실업계고교 자녀에 게만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고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진천지역 농업인 7백3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환 발견자중 70~80%는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사전에 자신의 질병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의료환경개선이 절실.

- 충북지역 농업인들은 시청각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충북도에는 단 한곳도 없어 특수아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3개 군단위로 묶어 장애자특수학교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

2.4. 충청남도

- 충남서산지역 5개 농협 RPC와 민간업자들은 올 산물벼 수매물량 1만 4천8백여톤에 대한 수매자금 2백억원중 정부 지원액은 50억원에 불과해 수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 충남지역에서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해 8월말 현재 6만2천여건 2천7백 60억원에 육박, 작년 같은기간보다 1백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금산에서는 농기계 리콜제가 농기계의 결함을 사용자가 직접 증명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과 제작사의 홍보 외면으로 96년 도입 이후 리콜제를 통해 교환된 농기계 및 부품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
- 서산간척지에 대해 현대건설측이 6백만평을 산업·위락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자 농림부가 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보도했고, 대전지역에서는 9월초 중국산 ‘납꽃게’ 파동 이후 참깨·버섯·고사리 등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급증해 매출이 50% 이상 뛰었고 가격도 10~30%까지 상승.
- 천안지역에서 농협이 주관하는 농산물 경매가 절차상 적법절차를 무시, 소액의 보증금만 형식적으로 받고 경매를 진행해 잦은 낙찰포기가 발생하면서 농산물 장기 저장으로 인한 품질저하 등 농업인들 피해 속출.
- 충남도는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전업농 육성 및 생산·유통 지원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품종 육성 지원 등 생산과 유통 6개 분

야 20개 사업에 2002년까지 1백41억원을 투입, 현재 전국 5위 수준의 화훼산업을 3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

- 서산지역의 생강재배농가 등 특수작물 재배농가가 값싼 수입산에 밀려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졌고, 태안지역에서는 시설 및 노지채소와 원예 등 밭작물 기계화율이 10%선에 그쳐 파종이나 제초 등을 거의 수작업에 의존.
- 충남지역 축산농가들의 한우사육 기피현상이 심화돼 전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9월말 현재 사육농가수는 전년보다 18.3% 줄고 사육두수는 1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돼지는 사육농가수 11.1% 감소 불구 사육두수는 3.4% 증가로 대형화 추세 뚜렷.
- 충남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나서 '구제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동방역사업단을 중심으로 축사에 대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홍성 등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천안지역 축산농가들의 소 사육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97년보다 사육농가는 34.9%, 사육 마리수는 12.1% 감소.
- 공주지역에서는 올초 최저가를 기록했던 산지 계란값이 8월 중순이후 생산원가를 넘은데 이어 9월 하순에는 왕란 1개에 95원 등 올초 대비 2배 이상 오른값에 거래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예산지역 26개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양사는 14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학생수 4백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영양사가 1주일에 2~3차례 방문하는데 그쳐 조리과정 감독 등의 허술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생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영양사 충원을 촉구.

- 경기가 풀리면서 충남지역 농공단지 5백37개 입주업체 중 4백47개 업체가 정상 가동돼 가동률 88.3%로 IMF 직전보다 7% 이상 상승했고, 서산지역 농가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4만9천여대에 달하고 있으나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매립과 냇가 방류 등 불법처리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2.5. 전라북도

-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에선 발표를 미루자 개발이든 중단이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 확산. 이와함께 전북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하는 등 깊은 관심 표명.
- 최근 전북지역에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배농가가 작년보다 2배 늘었고, 출하량도 4천5백여톤으로 작년보다 5배이상 증가했으나 아직도 대형 할인점에서는 환경농산물 취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 전북지역 귀농인이 98년 7백91가구서 99년엔 4백56가구로, 다시 올 상반기까지는 1백28가구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농촌에 ‘젊은 피 수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익산지역에서는 귀농자를 위한 지원금액이 지난해 1억8천만원에서 올해 3천8백만원으로 크게 축소돼 1인당 9백50만원 배정에 그쳤다고 보도.
-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막히면서 농축산물 수출이 급감해 전북지역은 8월말 현재 5천7백29만달러 실적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71%

수준에 그쳤으나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은 소폭 증가.

- 전북지역의 화훼재배면적은 7백48ha로 전국 3위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ha당 생산액은 5천9백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천여만원이나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과 유통개선 대책이 시급. 이와관련 화훼류 수출규격도 영농조합법인별로 달라 현지시장서 신뢰도 하락과クレ임 소지가 상존함은 물론 가격 하락요인으로 이어져 채산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황토牛’와 ‘유황오리’가 지역 명품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사기관과 객관적인 검사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육농가들이 품질인증마크제 도입을 요구.
- 육질의 고급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한우 거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이 비육기간이 늘어 사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외면해 대상농가의 11% 참여에 그쳤고, 고창군은 축산물 개방에 대비, 97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우량종돈 공급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
- 김제지역 양계 농가들이 미완숙 옥수수 등 외국산 불량사료에 의해 닭의 소화불량과 각종 질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고, 9월초에는 소기립불능증이 계속 확산, 익산지역 6개 축산농서 11마리가 감염돼 2마리가 폐사.
- 전북도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 등과 양돈·양계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한 경구백신 개발을 1차적으로 완료한 가운데 돼지와 닭의 바이러스 질병 박멸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키로 했다고 발표.
- 고창지역에서는 중국산 수입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땅통과 수박 대체

작목으로 인삼재배가 부상하면서 올해 경작 가구수가 98년보다 50%나 증가.

-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수 1백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2002년까지 1백44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학부모들 반발.

2.6. 전라남도

- 전남도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한 ‘친환경가족농단지’ 93곳에 4천 3백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농가는 1천3백곳에 불과하고 유기농과 무농약재배인증 94농가를 제외한 4천2백여 농가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환경농업을 확산시킨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전남지역에 귀농했던 젊은 농업인들이 다시 도시로 복귀하는 ‘역U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이지역 농업인구가 40.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착지원자금 확대 등 젊은농업인 유인책 마련 절실.
- 전남도가 지난 4월부터 우수농산물 사이버장터 ‘우리숍’을 개설해 농가 개인 홈페이지 2백30건과 쇼핑몰 5백10건 등 7백40건의 사이버 쇼핑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만에 방문자수 1만1천여명에 4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
- 광주세관이 올들어 7월말까지 참깨와 고추 등 농산물 밀수액을 조사한 결과, 1백2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8배나 증가했고, 밀수꾼들이 최대로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참깨와 고추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순천대학교는 몽골에 대규모 농지를 개척하는 방안을 추진해 몽골측과 토지를 60년 이상 장기저리로 임대받아 전남지역 농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한 결과 몽골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보도했고, 무안군은 독일과 합작 투자를 통한 농축산물가공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투자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발표.
- 전남도는 관·학·연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 및 농업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 조치하고 정책에도 반영키로 했고, 이와함께 학계와 농업인 단체로부터 비현실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재해지원 상향조정과 원예용 관정개발 등 23건에 대해 농림부 등에 개선을 요구.
- 전농 전남지부 등 농민단체들은 LG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이 가격폭락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천명했고, 이와함께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분야는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하며 범농업인 서명운동도 전개.
- 최근 마늘값 폭락으로 마늘재배농가가 양파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내년산 양파재배 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보다 조생종 37.4%, 만생종 10.7%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과잉생산이 우려.
- 수확기 태풍으로 낙과피해가 컸던 나주배의 산지가격이 폭등하면서 농가에서 수출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수출물량 부족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것을 우려했고, 광양시는 섬진강변에 매실 특화단지를 조성, 2002년까지 4만주를 공급해 농가 소득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

- 전남지역에서는 한우 사육기피 현상이 뚜렷, 6월말현재 사육마리수는 26만6천5백여두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도는 한우 고급육 생산 육성책을 마련, 현재 고급육 생산 비율 24%를 60%까지 확대하고 공동브랜드도 집중 육성키로했다고 발표.
- 구제역 파동이후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체 사육두수는 증가해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 7월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해 9월 중순에는 1백kg기준 성돈 마리당 14만9천원으로 한달새 3만2천원이나 하락해 '가격파동'을 우려.

2.7. 경상북도

- 안동에서 시작된 농민단체들의 LG와 해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영천으로 확산,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일부 농협하나로마트도 LG제품 판매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대기업의 농산물 무분별 수입에 대한 불만 확산.
- 청도지역 농민들은 이지역 9천9백여 농가중 해마다 징수하는 농지세는 전체의 1%도 안되는 90여 농가 1백여만원 밖에 되지않아 과세인력만 낭비하고 있다며 농지세 폐지를 주장했다, 영천지역에서는 16개 위탁영농회사들이 위탁면적 감소와 농기계 보조금 지원 중단 등으로 절반 가까이 폐업.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무와 배추 등 12개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를 요구하며 경매참여를 거부하고 나서자 市와 법인노조는 비상장품목 확대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7월 하순 경매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

- 경북지역의 단위농협들이 농특산물 가격하락과 선심성 경영 등으로 적자를 거듭해 고령 농협은 지난해 17억8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일부 농협은 연체율이 30%에 달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 구미 원예수출공사가 1백83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2만5천평짜리 초대형 온실에서 재배한 국화중 1만여 그루가 고온장애를 입어 절반값에 국내에 유통되는가 하면, 재배기술도 국제수준에 못미쳐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 최근 유류값이 크게 오르자 청도지역 시설재배 농업인들은 올 겨울 시설고추 등 재배면적을 14% 가량 줄이는가 하면, 정식 시기조절과 단열재 설치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
- 영천지역 포도 재배농가들은 재배면적 급증으로 과잉생산에다 최근에는 칠레산 포도의 대량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포도주 제조 및 판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와 주세 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봉화와 예천지역에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농촌 소규모 약국들이 처방전에 따른 약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돼 문닫는 속이 속출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약국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

2.8. 경상남도

- 경남농협지역본부는 시·군에 산재해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1백81종 달하나 자체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역별, 품목별로 일원화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 휴경농지 이행 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처분을 외면해 마산에서는 97년 이후 91필지 8만8천여㎡를 적발, 처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농지는 6필지 3천8백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휴경농지 이행 강제금 부과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경남농업기술원은 ‘홍시 요구르트’ 등 3건의 농산물 가공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가공기술의 실용성과 산업화를 촉진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계획.
- 사천농협 등 단위농협들은 일부 조합장이 중앙회 요직으로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앙회 및 지역본부 감사가 형식에 그치는 점을 이용, 직원들이 공금횡령이나 부정대출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
- 농업기반공사는 1백50억원을 투입해 밀양에 총 25km에 이르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2003년 완공할 방침으로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물 취수로 만성적 농업용수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남지역의 신선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여 상반기 농산물 전체 수출은 4.8% 증가한 반면 파프리카 등 신선채소는 92%나 신장한 것으로 집계. 한편, 고추에 대한 관세는 2백82%인 반면 고추장은 50%에 불과하는 등 원재료에 비해 가공품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점을 이용해 올들어 7월까지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고추장 수입물량은 3백18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8%나 증가.
- 8월말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낙과 피해가 발생, 정부에서 5톤트럭 1대에 80만원 수준으로 구매하려 하자 운송비도 못건진다며 구매를 외면. 이와함께 구매대상도 당도 11 이상으로 규정하고 동전 크기만한 흠집만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과수농가들 ‘탁상행정’이라고 집중

성토.

- 경남지역의 한우농가와 사육두수는 1년새 각 14.8%와 17.1%씩 감소한 반면, 돼지사육농가와 사육두수는 각 11.6%와 1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축종간 양극화가 뚜렷한 가운데, 쇠고기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로 경남지역에서는 7월 한달간 한우 도축수 총 7천1백40마리중 암소가 무려 5천4백여마리로 75%를 차지해 암소도축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우려.
- 함안지역에서는 최근 2~3년새 농촌지역 보육지원금 대상아동이 급속 증가해 어린이집 14곳에서 2백35명의 지원대상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예산은 1백90명분에 그쳐 10월말께면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추가 지원이 시급.

2.9. 제주도

-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농약사용량은 매년 10%내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제주도에는 ‘감귤산업발전기금’ 등 3개의 1차산업 육성기금이 있으나 지자체의 출연 외면으로 적립금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귤 수출단지 6곳서 최근 5년간 수출한 물량이 3백80톤에 그쳐 무용론 제기.
- 제주지역 농업조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감귤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돼 작년 농업 조수입이 전년보다 20% 감소한 7천2백48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올 감귤 생산량은 56만3천톤으로 예상돼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

로 전망.

- 제주도는 감귤생산과 유통개선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9백억원을 투입해 부적지 감귤원 연차적 폐원을 통해 재배면적 2만여 ha를 감축키로 했으며, 품종갱신과 공동출하 등도 추진키로했다고 발표. 이와관련, 제주도는 해거리로 인한 감귤 풍작에 대비해 감귤원 3천여ha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하고 농가에 약제구입비 등을 지원.
- 제주지역 20개 농·감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감귤협의회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각종 농산물 수입으로 감귤 등 국내산 과일 값의 폭락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농업분야 협상제외를 위한 서명운동전개.
- 제주농업기술원이 과일 수익성을 조사한 결과, 참다래가 3백평당 2백 32만9천원으로 노지재배 작목중 가장 높았고, 시설재배는 감귤이 3백 평당 9백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 제주지역 농협의 비료창고, 선과장 등 경제사업을 위한 시설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유지와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 8곳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할인점에 밀려 이중 7곳이 2백만원에서 최고 6천4백만원까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매장 통·폐합 등 대책이 시급.
- 제주지역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96농가는 생산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량 생산체계 구축과 청정·무공해 특산품으로 브랜드화 하기로 했고, 북제주지역 마늘 농가들은 한·중 마늘협상 여파로 마늘재배면적 2백여ha의 작목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생양파와 잎마늘

재배농가의 피해 예상.

- 제주지역 5개 지역축협이 6월말 가결산 결과 올해 14억8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됐고, 양봉축협도 12억8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부실. 한편 제주도는 일본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16억원을 투입해 육가공공장을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
- 제주도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82개 마을공동목장에 3백19억원을 투입해 목장별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신규 초지 6천3백ha도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구제역으로 중단됐던 돼지고기 수출이 9월초 다시 재개되면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홍콩에 16톤을 수출.